



자랑스런 동문·2세 한데 모은 DB 만들자

(데이터베이스)

우리들의 제안

로마가 지구촌 최초의 패권국가가 된 건 오로지 '길' 덕분이 아닌가 싶다. 당시로선 첨단기술과 정보가 이 길을 통해 로마로 빠르게 흘러 들어갔다. 이 길이 요즘 말로 슈퍼 컴퓨터의 기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 뿐이 아니다.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된 것도 따지고 보면 로마의 길이 큰 역할을 했다. 얼마나 도로를 잘 닦았으면 지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the roads lead to Rome)' 는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전대미문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에도 이런 격언이 전해진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한마디로 성을 짓는다는 것은 폐쇄와 불통이고 길을 닦아내는 것은 소통과 개방이다. 이처럼 길은 정치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국도 알고 보면 옛 로마 처럼 길에 대한 집념이 무척 강한 나라다. 그래서인지 광활한 대륙을 씨줄날줄처럼 엮은 프리웨이의 표지판은 방패(shield) 모양으로 생겼다. 옛 로마군단의 아이콘, 바로 그 '실드' 다.

프리웨이를 운전하면서 가끔 생뚱맞은 생각을 해본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물론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다. '디지털 하이웨이' 라고 할까. 모든 정보에 실시간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의 건설이다.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서울대 동문, 교수, 학생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 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에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정관계 등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이 상당수다. 동문 자녀들까지 서울대 네트워크에 포함하면 그 영향력은 상상도 못할 만



큼 커진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염원이라는 노벨상 수상도 어찌면 미국내 서울대 출신 과학자들이 첫 영예를 차지할 지 모르겠다.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을 받는 UC버클리의 김성호 교수. 최근엔 김필립(하버드대), 박홍근(하버드대), 하택집(일리노이대) 등 소위 '서울대 86학번 삼총사' 가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서울대 2세' 들의 활약도 괄목할만하다. 동양대 최초로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다트머스)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김용 박사가 대표적인 예다. 부친 고 김낙희 교수는 의대 출신 동문이다.

예술계에서도 2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새라(영주) 장이다.

부모인 장민수·이명준 부부는 음대 기악과 및 작곡가 출신. 이명준 동문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공대 화공학과에 입학한 여성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새라 장은 니콜로 파가니니, 야사 하이페츠, 아이작 스티븐 등과 비견될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런 동문 2세 뮤지션이다.

최근엔 정재훈 동문(공대)의 따님(줄리 정)이 스리랑카 대사로 지명돼 동문들의 기를 한껏 살려줬다. 국무부 내에서는 신입 외교관들의 멘토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한인 후배들을 챙기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주한 미국대사가 될 것이 틀림없겠다.



노벨상 후보군에 들어있는 김성호, 김필립 교수는 자연대 86번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새라 장은 장민수-이명준 동문 부부의 딸이고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가 된 줄리 정은 정재훈 동문의 딸이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호, 김필립, 새라 장, 줄리 정.

이처럼 미국내 동문들과 2세들이 총망라된 사이트를 구축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현대는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미국내 동문끼리 서로 소통하고 한국에서도 접촉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동창회가 할 일은 바로 동문들을 이어주는 길을 깔아주는 것이다. 5~10년에 걸쳐 데이터를 축적하고 꾸준히 홍보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다.

고무적인 현상은 동창회 평생이사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달에는 한 분이 동창회 사무실을 찾아와 선포 1만 달러 체크를 건네 주셨다. 앞으로 도움일이 있으면 힘껏 돕겠다는 그분의 말씀에 공연히 고개가 숙여졌다. 동창회 업무에 보태쓰라고 돈을 낸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문들이 소통하도록 길을 닦으라는 주문일 터다.

'모든 길은 서울대로 통한다' 는 말이 널리 회자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생각이다. 동문님들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절실하다.
16대 미주동창회 임원진

미주동창회 새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news@snuu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길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함께 웃고 나누는 소중한 친구 같은 동창회 만들 것”

노명호
신임 서울대 미주동창회장



“동창회장에 취임하고 난 뒤 많은 동문들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격려해주셔서 힘이 나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사명감도 듭니다.”

자문회의가 열린 지난달 22일에도 그랬다. 동창회에 관심은 있었으나 모임에는 한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성낙호 동문(치대 63)이 동창회 사무실로 찾아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후원금 1만달러를 기부했다.

1년치 동창회비 75달러를 보내면서 200~300불을 더 넣은 동문은 100명이 넘고 졸업이지만 글로라도 돕고 싶다며 동창회보에 원고를 보내준 동문들도 적지 않다.

노명호 회장은 “저는 서울대와 미국에 빛이 많은 사람”이라며 “제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는 미주 동문들을 모시고 함께 웃고 울며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 같은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명호 회장은 여행을 좋아한다. 지난 25년 동안 매해 최소 1~2번씩 외국 여행을 떠나 6개 대륙 모두에 발을 디뎠다. 부인이 풍경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라 스위스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북극 그린란드까지 풍경이 멋진 곳은 다 돌아다녔다. 그런데 이제 그의 주요 여행 행선지가 바뀔 듯하다. 어쩌면 2년 내 50개 주 미 대륙 일주 기록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자주 만나고 직접 만나지 못하면 통화라

“동문들 많은 격려에 힘 나 자주 만나고 통화할 것 젊은 동문 행사 적극 지원”

도 자주 하자는 것이 미주동창회를 운영하는 저의 모토입니다. 저와 16대 임원들은 26개 지부 동창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앞으로 가능한 여러 지부를 방문하고 지부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장 첫 여행 일정이 잡혔다. 각 지부 회

장들에게 인사 메일을 보내자마자 ‘한번 와주십사’ 하는 메일이 답지했는데 북가주 지부에서 주최하는 동문 야유회에 초청받았고 시카고 지부에서도 10월 10일 행사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와 방문 계획을 짜고 있다.

사실 노명호 회장은 잦은 여행을 하기에 그리 젊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그런 우려를 웃어 넘긴다.

“지금도 10년 15년 후배 동문들과 스크래치 골프를칩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골프백을 핸드카트에 싣고 걷고 있습니

다. 61학번이지만 고령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또 동창회에 열심히 참가하면 건강해지고 젊어진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람의 수명은 교류하는 친구 숫자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장된 전화번호가 200명이 넘고 그를 초청한 카톡방이 수십개에 달하니, 교류하는 친구 숫자로만 친다면 그는 좀 과장해서 청춘이 부럽지 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다.

노명호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이 젊은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는 동창회다. 그는 이를 위해 80~90년대 학번 후배들에게 집행부 임원직을 맡겼고 자신은 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녁 사주고 술 사주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명호 회장은 특히 젊은 동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지부 행사에는 재정적인 후원도 가능한 한 많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명호 회장은 다른 많은 이민자들처럼 1971년 2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와 초창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UC버클리에서 환경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거주 기술사로 상하수 처리 및 워터 리사이클링에 관한 일을 하다 1979년 리앤로(Lee & Ro)라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립했다.

2018년 서울대 토목동창회에서 주는 ‘해외토목인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40여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에서 은퇴했다.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2006년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역임했고 모교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SNU Honor 클럽 멤버’에도 올라 있다.

“내 남은 인생 목표는 매년 10억원 이상 기부하는 것”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세계화, 이른바 ‘글로벌’ 만큼 회자되는 단어도 없을지 싶습니다. 서울대학은 상당 부문에서 글로벌화 됐는데 동창회는 아직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섭(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66) 동문이 지난 6월 25일 한인타운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개막한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 참석차 LA를 찾았다.

이에 앞서 동창회보 취재진과 만난 김 동문은 동창회 조직의 글로벌화를 몇차례나 강조했다.

“세계화는 곧 미국화다(Globalization Is US).” 토머스 프리드먼의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The Lexus and the Olive Tree)’를 인용한 김 동문은 “이 점에서 미주 동문들은 한 분 한 분 모두 보석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미주 동문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낸다면 모교가 가까운 장래에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가 평의원회의에 참석, 선뜻 10만 달러를 기부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동문은 귀국해서 학계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주 동문들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동문은 총동창회 부회장 외에도 문리과 대학 동창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지금은 사회과 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 3개 대학으로 쪼개져 있으나 예전엔 모두 문리대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

문리대 동창회는 지난해 4·19 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4·19 민주평화상’을 제정, 그 존재감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상자를 내지 못했는데 올해 1.2회 수상자를 함께 선정, 시상했다.

1회 수상자는 반기문(외교학과·63) 전 유엔사무총장, 2회 수상자는 김정남(정치학과·61)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각각 선정됐다.

김 전 수석은 1960년대부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점이 인정돼 상을 받았다. 반 전 총장은 상금 중 일부를 미얀마 민주세력을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상금은 각각 5,000만 원. 김종섭 동문은 이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과학대에 20억 원을 종잣돈으로 기부했다.

김 동문은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회장 지창열)와도 유대관계를 돈독히 맺겠다며 앞으로 미주 동문들 가운데서도 책임자가 있

“미주 동문은 보석같은 존재” 새 집행부에 10만달러 기부 모교와 교류 확대 지원 약속

으면 4·19 민주평화상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동문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역임하는 등 한국 사회 발전에도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코피온(COPION)’의 3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코피온은 47개국 150여 비영리기관에 매년 1,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는 한국 최대의 국제 개발협력단체다.

김 동문은 서울대학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거의 100억 원을 기부했다.

서울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동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기부에 집착(?)하다시피 하는 동기가 궁금했다. “지금도 대학시절을 떠올리면 너무 행복해요. 내 인생 최고의 4년이었습니니다. 그래서 다 짐했지요. 훗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행복을 몇십배, 몇백배로 보은하겠다...”

김 동문은 입학하자마자 적십자사 활동을 했다. 당시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들은 모두 평생의 벗이 됐다. 지금도 미국에 오면 맨 먼저 적십자 친구들부터 찾는다. “그 때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클럽이나 서클 활동을 통해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인성이 계발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배들에게 알려주지요. 공부만 하는게 대학생살이 아니라고요.”

서울대학 뿐만이 아니다. 김 동문은 적십

자 등 주요 사회단체들에도 5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냈다. 살아오면서 복을 많이 받고 누렸는데 이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그 복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김 동문은 세계규모의 종합악기메이커인 삼익악기 회장. 스타인웨이 등 독일 및 미국의 유명 피아노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해 오늘의 삼익을 만들었다. 이곳에도 사업체가 몇개나 있어 1년 중 거의 서너달은 미국에 살다시피한다.

“따지고 보면 저도 미국 교포나 다름없습니다. 세금도 꼬박 꼬박 내 메디케어는 물론 소셜시큐리티도 받고 있어요.”

김 동문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10만 달러를 내놓는 등 미국서도 기부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엔 치매와 ‘웰다잉’ 죽음교육 전문 기관인 소망 소사이어티 평생회원으로서 가입해 비영리 한인단체 돕기에 나섰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특히 아프리카의 최빈국 차드에 우물을 파는 등 원주민들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해 한인커뮤니티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김 동문은 요즘 젊은 경영진으로부터 은퇴압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냈다. 이제 회사도 제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 좀 쉬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김 동문은 “내 사전에 은퇴는 없다. 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선다고 했다.

왜 돈을 더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내 남은 인생 목표는 최소 10억 원씩을 매년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 한 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가 즐겨 쓰는 영어 중 하나가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다. 기부를 해서 남을 도우면 엔돌핀이 펄펄 솟아나 기분이 ‘하이’ 상태가 된다는 것.

“믿기지 않겠지만 기부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기부를 할수록 돈이 더 벌려요.”

(동창회보 취재팀)



지난 6월25~27일 LA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노명호 신임회장과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이 상호 협력과 교류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석 사무총장, 노명호 회장, 김종섭 부회장, 김인중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국장.

“미국 생활의 즐거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원진 소개

지난 5월 말 신응남 미주동창회 15대 회장이 LA에서 열리는 제30차 평의원 회의의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LA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행사가 열릴 호텔 점검을 위해 16대 임원들이 모인 시간은 오후 5시쯤이었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무, 광고, 재무, IT 등 거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고 신회장은 일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16대 집행부의 응집력에 놀라워하며 연신 부러움과 기대를 표시했다. 동창회를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16대 집행부의 ‘좋은 사람들’을 소개한다.



노명호 회장과 임원진들이 지난 5월말 동창회 사무실에서 제30차 LA 평의원 회의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강호석
사무총장
(경영 81)

저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경영학과 81학번 강호석입니다.

이제 미국에 온지 35년이상이 되었고 남가주에서만 살았습니다.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는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회계법인에서 지금껏 계속 CPA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모두 동부쪽으로 가 있어서 보스턴, 뉴욕쪽으로 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10년 전에도 미주동창회에서 재무국장으로서 봉사하면서 많은 선후배분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미주동창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동문들과 교류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훌륭한 선배, 후배분들과 만나면서 서울대학교라는 훌륭한 모교를 둔 것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미국 생활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도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걸 느끼면서 젊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동창회에 참여하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이호진
총무국장
(간호대 74)

총무국장을 맡은 간호대 74 학번 이호진입니다.

대학시절 의료 봉사에 참여해 주말이나 방학때 무의촌 지역을 다니며, 보고 배우고 경험한 공중 보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공중 보건 대학원도 졸업했습니다. 1983년 남가주 LA로 이주해 LA 카운티 병원에서 내외과 병실,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다가 가주 보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로컬 보건국 직원으로 CDC(연방질병통제센터), 가주 공중보건 부서와 같이 유대하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비드 백신이 나오면서 LAC 보건국이 지역 사회에 백신 클리닉을 설치해 백신을 배부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제가 LAC Public Health Nurse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한 일입니다. 그러곤 지난 3월 30일 LAC 직원으로 29년 3개월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고 은퇴를 했습니다.

미주동창회 일을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고 남가주 간호대 회장과 남가주 동창회 임



이호진 총무국장의 은퇴 증서. 이 국장은 은퇴 후 쉬지도 못하고 미주동창회 총무국장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

원의 경험을 살려 일을 한다면 관창치 않을 까 싶어 흔쾌히 총무국장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16대 임원진은 시무식을 하기 전에 제 30차 평의원회 회의를 준비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COVID 19 Pandemic이 조금씩 나아가는 상태였으나 아직 우리가 이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행사를 치를 장소를 알아보았으나 선뜻 나서는 호텔들이 없었습니다.

Oxford Palace Hotel에서 흔쾌히 우리의 행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LAC Health Department Guidelines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 하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6월이 되면서 COVID 19 Pandemic 사정이 호전되어서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3일간의 행사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미주동창회 모임이 처음인 저로서는 모르는 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나 하나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완성해가듯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총동창회가 몇개의 지부로 형성되어 있는 지조차도 모르면서 열심히 저에게 넘어온 정보들을 하나 하나 모아서 평의원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 또는 모르는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도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상임이사님, 종신이사님, 평의원님들의 이름이 머리속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우리 16대 임원진들은 2021년 7월 1일 사무실에서 케이크를 자르면서 임원 시무식을 치루었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모두 합심하여 원활하게 미주동창회를 잘 이끌어 가자는 결의를 하면서요.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추천해주신 홍선례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슬기롭게 일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동문들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편집자 레터



신복례
회보 편집장
(인문 83)

제16대 미주동창회의 회보 편집장을 맡아 지면을 구성하고 인터뷰를 하고 기고문을 청탁하며 16대 첫 회보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달 11일 새벽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진리를 모르지 않지만 0.001%도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느닷없는 죽음에 사실 편집장 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미국땅에 가족이라고는 저와 아직 어린 두 아들 뿐인데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 그리워했던 한국의 가족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회보를 마무리할 자신이 없었습니

다. 16대에서 발행하는 첫 회보만 아니었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노명호 회장께서 회보가 좀 늦어진들 뭐 대수냐며 제 슬픔을 위로해주셨고 그래도 낫 나가 앉아있는 저에게 동문들 카톡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100여분이 넘는 동문들이 남편의 명복을 빌어줬고 집행부 선배는 저 대신 원고를 받아 수정해 올리고 새로운 원고를 청탁하면서 “힘들겠지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회보 편집장을 맡기 전까지 동창회 일에 거의 참여한 적이 없는 동문입니다. 한때 만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던 83동기회에 가족들 데리고 열심히 나간 적도 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기들이 늘면서 모임은 흐지부지됐고 또 한때 80년대 학번 주축의 남가주 관악연대 모임을 즐겼으나 그 모임도 시들해지면서 연락을 안하고 살았습니다. 편집장을 맡고 나서 근 7-8년 만에 처음 안부를 전했고 두 번째 전한 소식이 남편 부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두들 저의 슬픔과 아픔을 안타까워했고 위로했고 기도해줬습니다. 회보 때문에 이따금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 얼굴 한 번 뵈지 않은 필라델피아의 김정현 선배님이 전한 위로는 제 마음 깊이 닿았습니다. 김정현 선배님은 제가 겪고 있는 제작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코네티컷의 유시영(15대 웹마스터) 선배님을 초대한 카톡방을 만들었고 주말인데도 마음을 내 원고를 써 보내주셨습니다.

동문 선배님들의 위로와 도움이 없었다면 가뜩이나 외로웠던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더욱 쓸쓸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물정 모르고 때로 천방지축인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을 뒤돌아보며 남편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16대 미주동창회보의 모토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성취를 하고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쌓으신 동문에게는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보잘 것 없이 작아지고 외로운 동문들에게도 따뜻한 위안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지난 6월말 열린 LA평의회 때 미 각지에서 오신 좋은 선배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코네티컷에서 오신 김창수 선배님, 미네소타에서 오신 김권식 선배님, 라스베이거스에서 오신 정상진 선배님, 무엇을 물어도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애기도 참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동창회의 가장 큰 매력은 좋은 동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일겁니다. 멋진 동문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글로나마 멀리 떨어진 동문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동문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회보는 동문들이 함께 꾸미는 사랑방입니다. 16대 회보에서는 시니어 동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은 물론 리빙 트러스트, 상속, 증여 등 은퇴 후 자산관리, 골프, 여행과 관련한 정보성 글도 고정적으로 게재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며 보내주신 아이디어는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이윤중
재무국장
(미대 93)

재무국장을 맡은 미대 93학번 이윤중입니다.

저는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LA의 매력에 빠져 미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대학원 졸업후 CPA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Single Audit을 Specialty로 6년간 감사일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UCLA Extramural Fund Management 부서에서 Senior Director로 재직 중이며 연 \$1.1 Billion의 UCLA Research Expenditures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Fund Management와 Audit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 노명호 회장님과 다른 임원진 여러분들의 Leadership과 Guidance를 따라 동문 여러분의 회비와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기부금들을 소중하게 관리하여 의미있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자성
홍보부장
(의대 79)

홍보부장으로 위촉받은 의대 79학번 김자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신과,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고 삼 십대 중반에 정신분석 공부한다고 미국에 왔는데, 여러 이유로 놀러 가게 됐습니다.

두 나라에서 두 세트의 정신과 수련을 받았고, 또 당대 정신분석 최고 이론가인 분석가로부터 수련 분석도 받았지만, 중도에 이게 아니다 싶어 포기하고 일반 정신과의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정신분석가가 되겠다는 큰 목표를 잃으며 한동안 구름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상태에서 중년의 위기도 겪었으나, 나름대로는 꾸준히 궁극적인 관심을 좇아 홀로 공부를 계속하며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믿기지 않는 나이 육십 줄로 접어들었고, 은퇴의 시점도 가물가물 눈에 잡히는 즈음, 마지막 활동의 장으로

생각하고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남가주 지역으로 옮겨온 지 이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드문 미국의 중부, 네브라스카에 살다 북쪽대는 엘 에이로 올 때, 마치산 속에서 살며 수련을 하다 저자거리로 내려가는 보디사트바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개업은 일차적으로는 생업인지라 생업과 보살핌의 이상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을 제 이상으로 삼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업 초기인지라 광고도 해야 하겠기에 신문, 라디오, TV광고도 하게 되었고, 또 가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불러주면 정신건강 연관된 토크 쇼를 하는데, 이런 <홍보>에 관련된 활동을 하던 차, 총동창회에서 마침 <홍보부장>이라는 역할을 위촉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취미활동은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모임을 갖는 것인데 어디에 살든 북클럽을 만들어 같이 공부하는 것을 해왔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런 모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양한 운동을 해왔고, 자전거, 수영, 테니스, 등산 등 아직은 골프만 빼고는 다 즐기는데 캘리포니아에 온 후로는 동문회 산악자전거 모임에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 운동 겸 친교 모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노래를 좋아해 유클렐레나 기타 반주에 같이 70~80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종교는 기독교 출신으로 자라 사십대 중반까지는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팀 등 꾸준히 활동했었고, 미국생활 중에 서양인들이 배운 불교/힌두교 등 동양종교에 대해 역으로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주로 명상수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두 번째, 그렇고 보니 두 세트의 삶을 사는 운명인 듯 싶습니다.

개인 삶의 역사와 색깔은 다르겠지만, 우리 서울대 동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역할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끼리 모여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우리보다 혜택을 덜 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에서 궁극적인 우리 삶의 의미와 기쁨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문화적 역량을 적극 교육,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제 사명이 있을 것으로 자각하며 동창회 일에 성심성의껏 참여할 것을 마음 다지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미국서도 선구자 역할 서울대인, 자랑스러워”

이희범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한국의 서울대 총동창회 이희범 회장이 노명호 신임 미주총동창회 회장에게 축하 및 격려의 서신을 보내왔다. 다음은 서신의 주요 내용이다.

노명호 미주동창회 회장님 귀하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미주동창회 회장을 맡아주신 노명호 회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노 회장님을 비롯해 새로 출범한 미주동창회 제16대 임원단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들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든든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우방이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지도층의 반열에 오른 미주동창회 동문들은 우리 동창회의 자랑이자 모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선구자들이십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바탕에는 미국 현지에서 고국의 명예를 빛낸 한인들이 있고, 그 중심에 서울대 동문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도 서울대인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선량한 시민이자, 뛰어난 지식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 회장님께서 이러한 미주동창회의 자랑스러운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지부 동창회 결집 기대

젊은 동문의 유입이 저조한 현실을 다른 어느 동창회 회장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여, 후배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81학번 사무총장, 83학번 동창회보 편집장, 92학번 재무국장 등 새로 출범하는 동창회 임원진의 면면에서 노 회장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대한 미국 영토 전역에 산재해 있는 28개 지부 동창회와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은 물론 자주 만나 소통할 것을,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걸어 활발히 소통하고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다짐 하셨습니다. 임기 중 회칙을 더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임기 이후에도 추진될 장기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하시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국 동창회도 새로운 비전 실천

본인 또한 자랑스러운 43만 모교 동문을 대표하는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취임 당시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취미를 살리면서 함께 즐기는 동창회’, ‘회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 등 4개의 비전을 제시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협약 병원을 전국 25개 병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라마다 군산 호텔·The-K호텔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동문 우대증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모금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총 1,280명의 재학생에게 3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젊은 교수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계신 동문 여러분께서도 모교와 동창회 소식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인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비록 지구 반대편에 계시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기꺼이 미주동창회 회장을 맡아 주신 노명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21. 7.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이희범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 총동창회 제16대 노명호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내 우수한 기업인이시며 모교 교액 기부자이신 노명호 회장님께서 만들어 갈
미주 동창회의 힘찬 번영을 위해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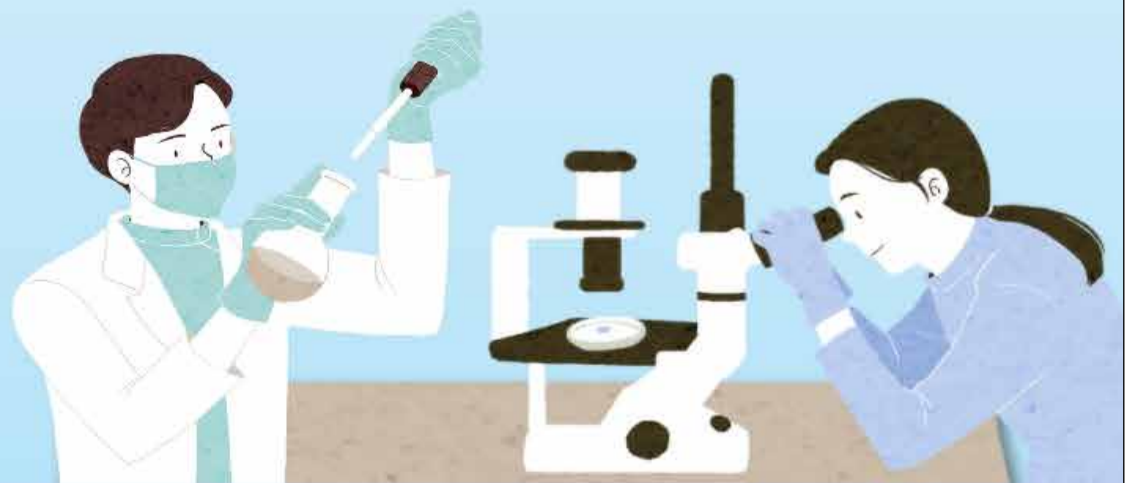
미래가
가치가
연구를
깃깃위
든든한

든든한기부

'든든한 기부'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 최초 노벨 과학상 수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서울대 연구자들의 꿈의 사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 QR을 찍어보세요!
든든한 기부 소개 동영상
내레이션 : 배우 이순재(철학과)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th@klgroup.cpa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가짜뉴스 넘치는 세상... 동문들 사랑 나누는 장 되길



김정현
(공대 68)
편집 고문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첫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죄인
으로 낙인 찍혔고, 그들의 아들들은 형 가
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행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같
다.

널리 알려진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구절은 유대교의 성경보다 더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Hammurabi's Code, 1754
BC)에 기록되어 있다. 고대 바빌론 돌기둥
에 새겨진 함무라비 법전이 280개의 법조
항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유대교의 성경은
모세(1393-1273 BC)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로부터 받은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율법
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무라비 법이나 모세의 법들의 기본은
고아나 과부 등의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하
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피
해를 가한 사람들이 받을 벌을 명시하고 있
다. 피해자가 입을 피해만큼의 벌을 가해
자에게 되갚아 주어야 세상은 공평한 세상
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 모든
법의 원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법은 여호와
가, 알라가 그들에게 주신 법(계명)이기 때
문에 아랍국가나 이스라엘 중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곤 한다. 아
니, 해야만 한다. 그래서 중동지역은 분쟁
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무슬림 모두 아브라함
의 자손들이다. 무슬림은 그들이 아브라함
의 맏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고,
유대인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선
택한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의 후손이라
고 한다. 이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는 가능
하지 않는 것일까?

단군(2333-? BC)을 조상으로 하는 우리
한민족에게도 이런 법이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수백년, 아브라함보다 2백년쯤
앞선 걸로 알려져 있는 단군의 고조선에 존
재했다는 8조법 중 한서지리지에 전해지
는 3개의 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
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
로 삼는다. 단, 자속(배상)하려는 자는 1인
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인터넷 세상이다. 미주한인들이 많이 사



Reporters with various forms of "fake news" from an 1894 illustration by Frederick Burr Opper. From Wikipedia

용하는 카톡은 한국내에서만 3천4백만,
전세계적으로 5천2백만의 가입자를 가지
고 있다고 한다.

수천만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쏟아지
는 영상물의 숫자 역시 말할 필요가 없겠
다. 개인 방송 시대가 되어서 너도 나도 인
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
어 놓는다. 사진을 합성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고, 동영상도 마음대로 짜깁기할 수
있다. 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하는
Deepfake 앱으로 초등학생이라도 동영상

은 자들이나 보리떡 한 조각 생선 한입이라
도 얻어 먹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기
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쏟아놓는 소문(?)들
은 또 어땠을까? 당시의 권력층인 제사
장들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
이고 유대땅에 남아있던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으며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땅을 떠
나 소아시아로, 로마로 퍼져나간 이유 중
하나이다. ('History of The Church', by
Eusebius, 265-339 AD참조).

솔로몬의 자손으로 현명하기 그지없는 유

허위 사실 유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금전적 피해 배상, 원상 복구 불가능해

을 마음대로 짜깁기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이 Fake News들
이 논란을 일으켰고, 뉴욕타임스나 CNN
등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측의 주장
들에 대해 'Fact Check' 라는 란을 만들어
진위 여부를 매일같이 알려주었다. 최근,
한국의 조선일보가 조국 동문과 그의 딸 사
진을 성매매 기사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처
럼 편집해 실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조선일보는 몇차례
에 걸쳐 사과문을 신문지면에 실었다. 조
선일보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했고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조
선일보에 대해서는 1억불짜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도 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남한의 1/5 밖에 안
되는, 뉴저지 주 보다도 작은 유대 땅덩어
리에 예수님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
살렘의 인구가 1만명, 기껏해야 2만명도
안 되었다고 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며 예수를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들
끓었겠는가?

한편으로 그로부터 온갖 질병을 치유받

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마음 속
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 살면서 '서로 사
랑하라' 는 예수의 새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만의 해법을 내 놓았다. 눈을 실
명시킨 사람의 눈을 뽑아 실명케 할 수도
있고, 손발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손발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利助)에 밝은 그들은 피해자
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
는 법을 발전시켰다. 손 하나에 얼마, 발 하
나에 얼마, 눈 하나에 얼마, 눈 두 개면 얼마
등등. 그래서 생긴 게 위자료요, 피해보상
이고 배상이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
가 두개 있다.

하버드 출신의 정통 랍비, Jacob Telushi-
kin이 유대인의 종교, 역사, 사회, 풍습 등
을 서술한 책 'Jewish Literacy' 에 의하면
그 하나가 살인죄다. 고조선 8조법 중 첫째
와 같다. 일단 죽은 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어떤 보상으로도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살인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허위사실 유포(Blas-
phemy)죄다.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몇명
에게 전파되었는지 숫자로 계산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온전한 금전적인 배상(일인당 얼
마 곱하기 사람 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허위사
실 유포죄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는 죄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보면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죄가 범람하고
있다. 양쪽 다든 어느 한 쪽은 유죄임에 틀
림없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이
나 기관이나 단체, 가족이나 개인들은 용
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일찍이 고조선의 8조법을 만들었던 현명한
한민족인데 어째서 조선시대에는 복인 남
인 서인 동인, 노론, 소론 등으로 갈라져 싸
웠고, 현재는 좌파 우파 극좌 극우, 친일,
종북 등으로 갈라져 싸우는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
지만 '성령을 훼방하는 죄, 즉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는 용서 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12:31)고 하셨다. 성령이 무엇인
가? 하나님, 곧 진리 아닌가? 진리를 부정
하는 죄, 진실을 감추고 허위로 조작해대는
죄는 정녕 무거운 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6대 미주동창회가 닦을 올리고
앞으로 2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동창회보
는 동문들의 애환을 나누는 장소이다. 다
행히 우리 미주동창회는 그런 파벌싸움이
나 허위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모임으로 보
여진다. 이 회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훈
훈하게 녹여주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사랑의 장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허위사실유포와는 관계가 없지만, 개인적
인 바람 중 하나가 우리가 먹는 음식재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밝혀주는 페이지가 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모든 정보
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각 음식의 장
점뿐 아니라 단점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동문 중에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 이런 유익한 정보를 쌓아 나가 많은
사람들이 "미주동창회가 내놓는 건강정
보"는 정말 믿을만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
게 되면 좋겠다.

김정현은

13대 미주동창회보 편집장을 지냈다.
AT&T 등에서 컴퓨터, 인터넷 테라빗 스
위치, 스마트폰 내장 통신칩 개발 등 반
도체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했다. 40대
에 북한의 핵과 이산가족의 아픔과 사
랑을 다룬 '동해물과 백두산' 장편소
설(상,하)을 출간하기도 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온라인 소통·친목은 필수



유정화
(정치학과 03)

요즘 인간관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가 시작되어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지, 오프라인 인간관계가 온라인 관계보다 보다 더 진정성 있다든지 하는 말은 다 허상이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온라인으로 친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시작된 관계가 온라인으로의 확장 없이 오프라인으로만 끝날 경우, 그대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COVID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채널, 게임,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되는 인간 관계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낯선 사람을 오프라인 현실에서 무작정 만나 친해지기를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동호회에 들어가고, 낯선 사람과의 어색한 만남을 감내하는 건 요즘 세대들에게 먼 이야기다. 모르는 사람끼리의 오프라인 만남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미리 대화를 트고, 정보를 주고 받으며 충분한 빌드업을 한 후 이루어진다.

몇 달 전, 서울대 재학생 후배들을 줌으로 만나 커리어 관련한 멘토링을 해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십 년이 넘는 차이의 선후배이기도 했지만,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이었고, 이스포츠(e-sports)의 팬이었으며, 넷플릭스 매니아들이었기 때문에 화제 거리가 넘쳐났다.

4시간 넘게 실재없이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도 이메일로, 카톡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후배들은 미리 이메일로 상세한 자기 소개와 나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미리 보내주었고, 위에서 이야기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실제 대화

또한 어색함 없이 술술 흘러갔다. 언젠가 오프라인으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할 정도로 꽤 친해졌다(몇몇은 코로나가 끝나면 LA 여행 오겠노라고 약속한 상태다). 온라인으로 이미 친해졌다면 오프라인 만남으로 넘어가는 것은 의외로 쉽다.

이러한 경향은 요즘 세대들이 학교나 회사,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과거 세대의 소속감은 나의 오프라인 맥락을 통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본인의 소속감을 '스스로' 구성한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관심사, 일하는 분야, 취미, 소비 성향 등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주제나 범위 내에서 인간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 주제나 범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온라인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계기 중 하나일 뿐이다.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오프라인 현실에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절대적으로 좌

우하지는 않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의 전화나 우편과 같은 단순한 연락이나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요즘 세대들이 각자의 소속감을 구성하는 현상이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관계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요즘 세대들과의 온라인 관계 빌드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들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서울대 졸업생의 소속감이 개인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동창회의 참여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유정화는
삼성KPMG 전략컨설팅그룹, 기획팀을 거쳐 현재 League of Legends 게임 개발사인 Riot Games 글로벌 퍼블리싱 전략팀에서 senior business strategist로 일하고 있다. 서핑, 요가, 게임이 취미이며, 사회대 03학번 동기인 남편, 고양이 베이, 로빈과 LA Fairfax District에서 알콩달콩 살고 있다.

동창회보와 아크로폴리스타임즈의 융합을 제안합니다



김지영
(사대 69)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틀림없이 종이 신문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동창회보'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쓴 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기사 기획, 원고 작성, 편집, 인쇄 그리고 발송까지 단계마다 여러 동문 또는 다른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소중한 최후의 소비자 동문, 가족, 친지들이 읽어 주시는 기쁨이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보답입니다.

종이 신문으로서 동창회보가 크게 아쉬운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자의 한정성입니다. 신문을 실제 받아 보시는 분과 주위 몇 분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필자와 독자 사이에 양방향 대화 채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자 의견 난을 만들 수 있지만 최소 시간 차가 한 달입니다.

다. 따라서 현장감이 있는 생동적 의견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종이 신문 보관의 어려움입니다. 신문은 한 번 읽고 버리기가 심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종이 신문의 대안으로 인터넷 신문이 등장한지가 벌써 한 세대 전입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대형 상업 매체들도 전통적 종이 신문보다 인터넷 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종이 판을 없애고 인터넷 전용으로 사업을 변경한 신문 잡지들도 많습니다. (예: The Hollywood Reporter). 물론 종이 신문의 과거가 없이 새로운 인터넷만의 매체로 성공한 언론사들도 있고요. (예: BuzzFeed News 그리고 Politico).

지금 동창회보를 인터넷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주 동창회를 꾸려가는 회장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일 손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가장 경비가 많이 나가는 일이 동창회보 발간 발송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 문제를 따져야 할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동창회보를 종이 신문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모교 그리고 동문들과 연결된 유일한 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주 곳곳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미주총동창회 입장에서 동창회보 발간에 들어가는 자원의 효율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없는가? 기존의 종이 신문에 새로운 독자층을 끌어들이고 필자와 독자 또 독자와 독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관심있는 기사를 쉽게 찾아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묘약은 없을까?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많은 분들이 <아크로폴리스타임즈> ('아크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했던 인터넷 신문이지요. 한 때는 미주와 한국의 국내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었고, 로스앤젤레스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매체에 밀려 사양길을 걸어왔습니다.

필자는 아크로를 <미주총동창회 동창회보> 종이 신문의 인터넷 판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아크로에는 좋은 글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크로의 독자들이 있습니다. 아크로가 동창회보를 받아보는 독자층 위에 인터넷 매체를 선호하는 젊은 동문들에게 동창회보의 내용을 전달하는 새로운 채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보의 온라인화는 이미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동창회 웹사이트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이미 매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꼭 미주총동창회 웹사이트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웹사이트는 관리가 어려워 스팸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아크로는 신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올리는 일이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아크로는 편집을 통해 글을 올리기 때문에 스팸 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창회보를 만드는 인력으로 아크로를 이용 접속이 용이한 동창회보 인터넷 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주총동창회 집행부에서 아크로와 동창회보의 접목을 논의하여 동창회보 온라인 시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먼저 손 내미는 친구... “즐거워야 또 모이죠”

이상강

서울대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매해 평의원 회의 참가해 친목 행사에 1만달러 기부

이상강 차기 회장(의대 70)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인다. 2013년 워싱턴DC에서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평의원 회의에 참가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아는 동문이 별로 없었던 그는 행사가 끝나고 호텔방에 올라가기 전 역시 동문인 부인과 함께 술이나 한 잔 하려고 엘리베이터 앞 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엘리베이터 앞을 오고가는 동문들을 보며 술이나 한 잔 하고 가시라고 말을 건넸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한 자리는 20여명이 둘러 앉아 밤늦게 까지 얘기꽃을 피운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됐다.

그때 나온 술값이 3000달러가 넘었지만 그는 그 덕분에 소중한 친구를 여럿 얻었고 그 친화력에 힘입어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사실 필자가 그와 인연을 맺은 것도 술 덕분이다. LA평의원 회의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어느날 그가 금문 고량주 한 병을 들고 동창회 사무실을 찾았다. 그가 따라준 금문 고량주는 술맛이 진하면서도 부드럽



이상강(의대 70) 차기 회장은 동문 부부다. 가정대 70학번인 김경숙 동문은 조용하지만 이상강 동문 못지 않은 친근함이 매력이다.

럽고 뒷맛이 깔끔해 애기는 자연스럽게 술 품평으로 시작됐고 이어지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강 차기 회장은 필자에게 ‘만나면 반가운 선배님’으로 자리잡게 됐다.

“서울대 사람들은 먼저 손내미는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의대 대선배님이셨는데 평의원 회의에 몇 년을 오셨는데도 다들 어려워우니까 술 한잔 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구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평의회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오시면 즐겁게 해드려야 다음에 또 오고 그렇게 동문들이 모이고 엮여져야 힘있는 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는 매해 평의원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동문 친목행사에 쓰라며 1만달러씩을 후원해왔다.

그와 얘기를 나누다보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느낌을 받는다. 소싯적 배운 시경과 당나라 시 30수 중 몇 수를 아직도 기억해 5년 전에는 한국에 가서 고교 동창들을 모아 놓고 한시 강연을 하고 왔다. 건강관리는 당수와 태극권, 태극검으로 하고 있다. 무예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이연결과 같은 무술 대표팀 멤버에게 배운 수준급 무예 실력이다.

이상강 차기 회장은 LA평의원 회의를 마치고 지난 7월초 그가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주 머스코기의 시골마을로 돌아갔다. 뉴욕 브롱크스-레바는 병원을 거쳐 1987년부터 리저널 메디컬 센터 흥부내과 과장을 역임하며 30년 넘게 진료 활동을 하다 은퇴한 곳이다.

“제가 하트랜드 지부 대표로 동창회장에 당선됐는데 하트랜드 지부는 오클라호마를 포함해 캔자스, 미주리, 아이오와, 아칸소, 네브라스카 등 6개 주를 묶은 지부입니다. 너무 넓어서 사실 만나고 싶어도 모이기 힘든 지역이지요. 많이들 외로워하는 만큼 차기 회장으로서 우선 이 지역 동문들이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지, 고민해보려 합니다.”

이상강 차기 회장의 부인은 가정대 70학번 김경숙 동문으로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과 외종 육촌간이다. 남편의 개인 오피스 운영을 도우며 무보험 환자들에게는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진료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

“동창회 매력은 멋진 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것”

김유경

뉴잉글랜드 신임 회장

친목 넘어선 뜻있는 단체로 젊은 동문 위한 사업 펼칠 것

노명호 신임 미주동창회장에 발맞춰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뉴잉글랜드 지부의 김유경 회장(음대 72)이 미주 각 지부와 더불어 가는 총동창회를 표방한 노회장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을 전해왔다.

김유경 회장은 16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외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여쭙고 싶다”며 “뉴잉글랜드 지부도 총동창회처럼 젊은 동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동창회를 소수의 친목회를 넘어선 뜻있는 단체로 만들고 싶다”며 “장학금 사업도 좀 더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선발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김 회장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오르간 연주로 석사학위를 받고 약 30년간 미국 교회에서 음악감독을 맡아 오르간 연주와 합창지도를 하다 2018년 은퇴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보스턴 심포니와 같이 공연하는 탕글우드 페스티벌 코러스의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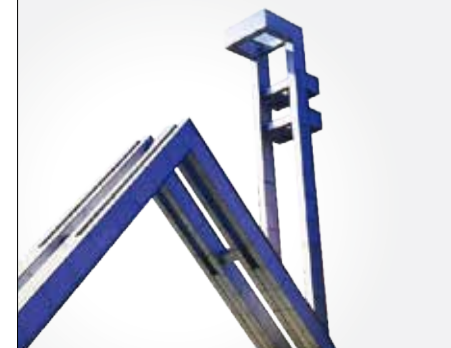
김 회장은 “아주 멋진 분들을 간혹 만날 수 있어 동창회 모임을 좋아한다”며 “연례 행사인 가을 야유회와 크리스마스 파티는 항상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지부는 매사추세츠와 메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를 포함해 등록된 회원만 약 230명 정도된다. 동문들을 위한 카톡방이 개설돼 있으며 SNUAA-NE friends and family 라는 폐북 공동체도 운영하고 있다.



16대 회장단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 & 임원 일동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자선음악회의 장성 La Fiesta Orchestra.

팬데믹 이긴 자선 음악회... 400여 청중 벅찬 감동

남가주 자선음악회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음악회 남가주 총동창회 성공적 개최 장성 지휘, 김유은 신선미 협연

“2년만에 이런 음악회에 와서 감격을 가지고 갑니다.”

“이 힘든 시간을 깨고 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리는 귀한 자리에 초대돼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7일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 자선음악회’에 참석했던 청중과 연주자의 소감이다.

이날 주말을 맞아 LA 코리아타운의 남가주 새누리교회 대형성전에서 개최된 ‘Dream of Hope’ 모금 음악회에는 동문과 비동문 등 4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했다. 본당의 대형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펼쳐지는 클래식의 선율은 지난 18개월간 단절과 결핍을 겪고 있던 많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휴식을 선사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단원 40여명의 ‘라 피에스타(La Fiesta)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장성씨의 지휘와 사회로 서막에서 3막까지 이어진 음악회는 장성 피아니스트의 리스트 곡 ‘Liebestraum’ (사랑의 꿈) 독주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협연으로 웅장한 막을 열었다. 이어서 제프리 토마스 어워드 수상 등으로 유명한 김유은 바이올리니스트(음대 07)가 사라사테 곡 ‘Zigeunerweisen’ (지괴이네르바이젠: 집시 에어즈) 등을 연주했고, ‘드라마틱한 감동’의 소프라노 신선미씨는 푸치니의 ‘O mio babbino caro’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운 금강산’ 등으로 청중들을 모처럼의 깊은 향수에 젖게 했다.

이날 공연은 라 피에스타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들의 최정상급 연주로 청중들의 기립박수 속에 앵코르 화답이 계속됐다.

장성 지휘자는 “뜻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뜻깊은 음악회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연주회는 특히 수많은 공연취소로 실의와 타격에 빠져있던 많은 연주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무대 였다”고 말했다.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최용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이번 자선 음악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기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교 후배들에게 희망을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계속 다음 후배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서울에서 보내온 동영상 축사를 통해 “남가주 총동창회가 어려운 가정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음악회를 기획하셨고, 또 이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마주하니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동문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베풀어 주신 희망과 사랑의 마음이 계속 이어져 아름다운 전통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장소로 제공된 ‘남가주 새누리교회’는 박성근 담임목사가 서울대 동문으로서 첨단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이 공연을 더욱 빛나게 했다.

주최측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예상외의 많은 동문들의 호응과 기부가 답지했다며 정산 후에 기부금을 모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고후원과 심시일반 소액후원을 제외한 고액기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규(수의대 67) 2만달러, 박민식(수의대 65) 1만달러, 손수웅(수의대 60) 1만 1200달러, 민경훈(법대 77) 1만달러, 미주동창회 1만달러이고, 장성 지휘자는 이날 출연료 5000달러를 반납해 총 6만 6000여 달러에 이른다.



① 신선미 소프라노가 푸치니의 ‘오 미오 바비노 카’를 열창하는 모습. ② 김유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솔로 연주를 마치고 답례하는 모습. ③ 장성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의 베토벤 연주.

16대 노명호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병준(상대 55, 3대 미주동창회장)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남가주 출신 해나 김, 복지부 부차관보에 임명

한인 1.5세, 서울대 영문과 졸업
한국전 참전용사 다큐 제작 화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리멤버 727’ 행사를 진행해 화제가 됐던 남가주 출신 해나 김 동문(사진)이 연방 보건복지부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에 임명됐다.

6세 때 미국에 이민와 남가주에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UCLA에서 전문경영인 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조지

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에서 입법 등의 회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동문은 부차관보로서 미국보건의료연구소(AHRQ), 소비자정보·보험감독센터(CCIIO),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보건자원서비스부(HRSA) 등 산하 기관 및 부서를 총괄하게 된다.

김 동문은 “LA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으로서 이번 발탁이 젊은 친구들도 누구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동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친한파 찰스 랭글 전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 홍보실장이자 보좌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바이든 대선 캠페인에서도 아태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활동하며공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 동문은 2016년 랭글 의원이 정계를 은퇴한 다음 해인 2017년 1월부터 4개월간 24개국의 한국전 참전국을 순방하며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해, 두 편의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 소개

“우리말 지키려 6년 걸려 영어사전 새로 썼다”

‘미-한 [변형]사전’ 펴낸 의사 이원택 동문



남가주 롱비치에서 정신과를 개업하고 있는 이원택 동문(의대 65)이 큰일을 해냈다. 취미로 문학을 하다 보니 영·한 사전을 찾아보는 일이 잦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46년간 이민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 사는 또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들을 위해 영어가 아닌 ‘미국어’ 사전을 출판했다.

기존의 영·한사전은 너무 권위적이고 교도주의적인 데가 전자사전에 밀려 종이 사전은 up-to-date가 안 돼 있어서 21세기에,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한국어 처방]으로 표기해서, 한국어와 미국어를 모두 살릴 수 있도록 만든 ‘살아서 숨 쉬는·한국어 살리기’ 사전이란다.

편자는 노인정신과 전문의인데다 한국에서 정식 등단한 수필가·시인·평론가로서 미주 펜 문학상을 수상했다. 「만화경」을 비롯한 ‘경’ 자 돌림 작품집 6권, 글쓰기 지침서 「Meta writing」을 써 펴낸 작가로 이 사전에서도 과학자답게 예리한 관찰력·정확한 묘사·냉정한 판단력을 동원했고 문학가답게 세심한 배려·공감대 형성·새로운 창조력을 심분 발휘했다.

이 책은 1236쪽에 <속어>·<신조어>를 포함해서 약 3만 2천 개의 표제어를 수록했고 실생활에 필요한<콩글리시>·<전산망 약자> 등 22개 부록도 첨가했다. LA 반디서점:



책표지

(213) 389-8885, Bandibookus.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조재길 전 세리토스 시장 ‘한반도 핵 위기를 넘어’ 출간



세리토스 시장을 지낸 조재길 동문(사범대 69)이 최근 저저 ‘한반도 핵 위기를 넘어’ (Beyond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Crisis) 한글과 영문판을 출간했다. 조 동문은 미국 시민들에게 한반도 핵문

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론 바리비 박사와 함께 한미평화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책도 바리비 박사와 공동 저술했다.

조 동문은 “한국에서 선편으로 보낸 영문판 책자는 도착하는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 연방 상하원의원과 미국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동문은 또 “한국의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가능하면 10월 중순 한국을 방문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동문은 몇 년전 펴낸

자서전 ‘소명 I’의 내용을 보강해 이번에 새로 내기도 했다.

조 동문은 1974년 도미해 1980년대 LA에서 코리아스트릿저널, 라성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역임한 후 2006년 중국 연변대학에서 ‘한반도 핵문제 연구’ 로 역

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1990),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1994), ‘통일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 (1998),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2006), ‘평화가 먼저다’ (2013) 등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원고 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김인종 위원이 만난 기부자 스토리

임낙균(약대 64)

“인재가 될 후배 돕는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해서 울로 지원되는 미주 동문들의 기부금은 1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작게는 몇 십달러에서 크게는 수백만달러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모교 기부의 물결은 해가 갈수록 더해진다. 한국의 모교에서도 미주동문들의 기부 헌신에 경이로움과 함께 감사를 보내고 있다. 이들 기부 동문들의 대다수는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용한 손길들이다. 회보 취재진은 이들 숨어있는 동문들의 아름다운 기부스토리를 발전기금 미주재단의 김인종국장을 통해 들어보는 공간을 마련했다.



**학비 벌라 공부하라
대학시절 즐기지 못해
후배들은 맘껏 놀기를**

약대 64학번 임낙균 동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남쪽 토렌스에 거주하는 임낙균 기부자를 만나 기부의 변을 들어보니 첫마디가 이렇다.

“장학금 받고 신나게 놀아보라는 뜻으로 기부합니다. 대학시절 나는 아르바이트하며 학비 벌라고 대학생활을 즐기지를 못했어요.”

가난한 시골출신의 임낙균동문은 대학 4년 동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6.25 전쟁세대인 우리들은 가난 속에서 홀로 살아남기를 해야 했습니다.”

12살에 학교를 가다

6.25 전쟁때 서울에서 전북익산으로 피난을 가서 국민학교(초등학교) 6학년 나이가 될 때까지 학교를 가지 못했다. 동네에서 전쟁고아들과 놀고 다녔다. 생계에 허덕이던 부모들은 임낙균의 학교입학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6학년 나이가 되어 서야 처음으로 국민학교를 다니게 됐다.

고아들과 함께 몰려 다니던 그를 눈여겨보던 국민학교 선생이 그를 만나 학교를 다니게 했다. 어린 임낙균의 총명함을 간파한 선생님은 개인교습을 시키며 제대로 공부할 하도록 했다. 흠속의 진주가 발견되듯 얼마후 학생 임낙균은 학교에서 1등을 계속하더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수석을 놓지 않았다.

“그담임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지요. 옛날에는 그런 사랑과 의무감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지요.”

늦각이 임낙균은 서울대 약대에 들어갔다. 아들의 대학진학을 꿈도 안꾸었던 가족을 놀라게 했고 시골마을에서는 경사가 났다. 그는 특출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며 약대에서도 학생회장에 선출됐다. 나름

나섰다.

975년 앨라바마의 샘포드대학에 도착해 부부가 함께 주경야독을 하며 미국 약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후 LA로 왔다. 그리고 LA에서 3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가 성공의 길에서도 항상 꿈꾸었던 것은 자기처럼 가난한 가정,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돕자

그는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시선이 갔다.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에서 그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겪는 고난을 보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게도 따뜻한 멘토의 손길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어릴적 함께 놀던 전쟁 고아들, 차별받고 고생하던 그 아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어떤 멘토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걸 제가 체험했잖아요.”

임낙균 동문은 그가 어릴 적 한 교사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어떻게 사회에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었다.

“전남교육청과 연결해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 20명을 초청해 3주간 미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가지게 했죠.” 그 다음해에는 경북교육청에도 의뢰를 해서 40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그 비용으로만 수십만 달러가 들었다.

나의 뿌리 서울대학교를 위해

서울대학교 약대는 오늘의 그가 있게 한 삶의 뿌리였다. 그 뿌리에서 더 많은 꽃봉우리를 맺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후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1만달러씩 내고 있다.

“저희 때는 학비벌라, 공부하라, 데모하라, 제대로 대학생활을 즐기지 못한 거 같아요. 물론 많은 추억은 있지만요. 생활에 쪼들리지 말고 대학시절을 즐기며 보다 큰 꿈을 꾸는 시간을 가지라고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낙균 동문이 10년을 더살면 10만달러, 20년을 더살면 20만달러가 추가로 모교에 기부가 된다. 그의 삶은 살수록 가치가 더해 간다. “인재가 될 후배들을 돕는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투자이죠. 어차피 돈은 써야 내 것이고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그는 소박하고 꾸밈이 없다. LA남쪽 타운 가디나의 조그만 한식집에서 소주 한잔과 함께 찜밥으로 점심을 하며 서울대학교에서 제2, 제3의 임낙균이 가난과 역경을 딛고 꽃을 피우기를 꿈꾸어 본다.

김인종은

서울대 농과대학, 대학원 74 학번. 한국일보 편집국 사회부 차장과 KTAN TV 보도국장, 라디오 서울 보도국장 겸 뉴스 앵커를 지냈다. LA 프레스 클럽 429 폭동 취재상 등 기자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 LA오피스 국장을 맡고 있다.



“아내의 건강식단이 보약입니다”

나의 건강 일지

이기준

(법대 54·전 남가주총동창회장)

지난 7월 17일 서울대 발전기금모금 음악회에 낮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이기준 동문(법대 54학번)이 장본인. 이날 모인 동문들 가운데 최고령(?)을 찍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보였다. 허리도 꼳꼳, 기억도 여전히 총총했다. 80대 중반을 넘겼는데도 안경조차 쓰지 않는 민낯이었다. 이 동문과 인사를 나눈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문을 했다. “이번 동창회보에 이 선배님 건강비결을 취재해 실어주세요. 우리도 본받게요.” 그래서 이 동문을 건강 초대석에 모셨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일게다. 맑고 깨끗한 눈은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 그래서 눈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하지 않는가.

시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백내장도 없으니 아직은 쓸만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길래... 하루 일과를 물었다. 코비드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아침 일찍 동네 공원에 가 치공(기공), 타이찌(태극권) 수련을 했다고 한다.

치공은 중국식 복식호흡, 타이찌는 시니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쿡후다. 중국계가 대부분이지만 오래 사귀 사이여서 친구처럼 지냈다. 20년 넘게 지속한 ‘모닝 루틴’ 이 바리스 때문에 형클어졌다고 푸념을 했다.

아침 식사는 오트밀에 햄프와 바나나, 체



커피는 두 잔씩, 매일 아침 사과식초 마셔
말수회 골프모임... ‘에이지 슈터’ 가 목표

리, 호박 말린 등을 듬뿍 넣어 먹는다. 계란은 반숙으로 2개. ‘노른자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괜찮으시냐’ 는 질문에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모르는 소리, (노른자엔) 레시틴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해요. 더구나 계란은 단백질의 주공급원이어서 우리 나이엔 ‘딱’ 이에요.”

매일 아침 사과식초도 빠뜨리지 않고 마신다. 처음 듣는 것이어서 레시틴을 물어봤다. 아주 간단했다. 사과 식초 한 스푼에 물 세 스푼을 소주잔에 받아 마신다. 코스

트코에 가면 ‘애플 비니거’ 를 판다며 친절하게 알려줬다. 성인병 예방에 ‘짱’ 이라는 것이다.

커피는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신다. 그것도 옛 한국의 ‘다방 커피’ 처럼. 밥은 현미 등 잡곡류가 아닌 흰 쌀(롱 그레인)이다.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라는 것.

취재가 거의 한 시간이 넘어갈 무렵 이 동문은 속내를 털어냈다. “내가 이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내 덕분 이에요.” 자신의 건강을 평생의 반려 김옥지 여사의 공으로 돌렸다. 김 여사는 한국

MBN의 인기프로그램 ‘엄지의 제왕’ 팬이다. 전문가들이 강추하는 음식을 눈여겨봤다가 그대로 만들어 밥상에 올린다는 것이다.

주변에선 왜 아직도 2층집에서 살고 있느냐며 다운사이징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동문은 이사할 생각이 없다.

“요즘 추세는 ‘에이지 인 플레이스(age in place)’ 라면서요.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늙어갑니다.” 이 동문에 따르면 2층집이 되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루 몇 번 이층 계단을 오르내리면 무릎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건강비결은 골프다. ‘말수회’ (회장 한효동) 모임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 매달 마지막(말) 수요일(수) 만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한 달 한 달에서 매주 한 번으로 바뀌었다. 더 자주 만나게 된 것. 식당 등 실내에서의 대면모임이 금지되는 바람에 야외에서 골프를 치는 거 외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다.

방석훈(농대 55학번), 오홍조(치대 56학번), 한효동(공대 58학번), 지인수(상대 59학번) 동문 등이 단골 멤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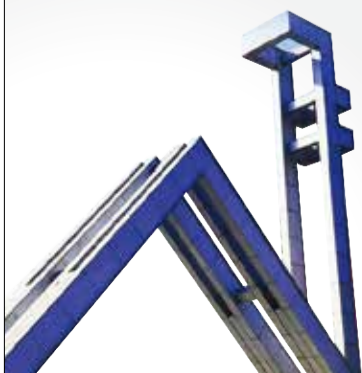
골프에 관한 한 이 동문의 바람은 ‘에이지 슈터(age shooter)’ 지위를 즐곳 유지하는 것이다. ‘에이지 슈터’ 는 자신의 나이와 같거나 하나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동문은 상대방의 스코어는 개의치 않는다. 70대 후반부터 필드에 나가면 스코어 카드를 꼭 챙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에이지 슈팅’ 은 100여 회나 된다.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더 자주 전화 걸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더 자주 보고 소통하세요.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잖아요. 만남이야말로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동창회보 취재팀)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반갑습니다! 다시 기지개 켜 동문 모임들

워싱턴DC 지부

69학번 모임 탄생

일곱 동문, 배우자 모여 친목

지난 7월 20일 워싱턴DC 지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바로 69학번 동문들만의 모임이다.

몇 년 전 동창 모임 활성화의 일환으로 DC 지부 동창회에는 학번 별로 나누는 세 모임 '마로니에' (74학번 이전), '아크로 폴리스' (75학번 ~00 학번), '샤로수' (00학번 이후)가 탄생됐다.

이 곳에서 만난 이들은 '마로니에'의 만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좀 더 친밀한 교재를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을 생각하게 되었고, '더 자주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보자'라는 의견이 모여 69학번만의 소그룹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남춘일(사범대 69, 이순은),



워싱턴DC의 74학번 이전 동문들 모임인 '마로니에' 멤버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엄달용(전기 69, 엄주옥), 이강우(공대 69, 길희옥), 이훈병(공대 69, Sarah Lee), 홍성한(사대 69, 홍순혜), 김정환(공업교육 69) & 김은성(간호학 75), 박평일(농대 69) 등 일

곱 분의 동문과 배우자가 참석하였고 초대 대표로 엄달용(전기 69) 동문을 선출하였다.

모임 내내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2차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더욱 동심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지기를 아쉬워 하며 자리를 뺐다.

한정희통신원(미대81)

북가주 지부

하이킹 동호회원 3명 총동창회장 수상 축하

북가주 총동창회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Zinfandel 하이킹 동호회는(매주 걷는 Zinfandel Trail을 따서 ZInfandel Hiking 으로 명명) 지난 7월 3일 모여 그 전 주 6월 26일 주말 LA에서 개최되었던 미주 총동창회 참석자들의 총회 참석 소감을 경청하였다.

북가주 동창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동창회 이사장인 강정수 동문(공대 61, 대기과 학)은 북가주 지역의 동창회 재정 강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장학 사업 및 기타 활동의 확대를 위해 Fundraising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하이킹 동호회에서 총동창회회장 수상자가 3명이나 나와(한만섭 '49, 홍경삼 '61, 민병곤 '65) 이들에 대한 축하를 겸해 아이스크림 파티까지 열렸다.

우측부터 홍경삼(외교 61 · 홍보위원장), 강정수(대기과학 60 · 이사장), 이장우(영문 72 · 전직 회장), 민병곤(토목 65 · 전직 이사장)



남가주 미대 동문들 작품전 수익금 기부

서울대 남가주 미술대학 동문회(회장 한석란)는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서울대 남가주 미대 동문전에서 모인 수익금을 남가주 총동창회와 서울대학교에 기부했다.

총 22명의 동문작가들이 내놓은 100여점의 작품들이 30% 할인된 가격으로 팔려 주 최측은 그 수익금을 각각 남가주 총동창회



남가주 미대 동문전에 참가한 작가들.

(회장 최용준)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했다.

이번 전시회가 열린 S 갤러리 2호관은 한

귀희 미대동문(전 남가주동창회장)이 코리아타운의 1호관에 이어 올해 개관했다.

한귀희 동문은 기부금을 전하면서 행사

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이와같은 동문작품전 및 기부행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동문 부부 결혼 60주년 3대 온가족 하와이서 축하파티

코네티컷 지부

사위는 하버드 동창회장 역임

지난 6월말 LA에서 열린 제30차 평의원 회의에는 멀리 코네티컷에서 의대 54학번인 김창수 동문이 참석했다. 미주동창회 행사는 첫 참석이라는 김 동문은 코네티컷에서 남가주로 이사한 오랜 지인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하와이로 날아갔다.

결혼 60주년을 맞아 자녀들이 3대 온가족이 모이는 축하 파티를 하와이에서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7월 8일은 역시 서울대 동문인 부인 안선숙씨(간호대)와 결혼한 지 60년 되는 날이다.

김 동문은 “우리 집은 코네티컷에서 자녀가 많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며 “아이들 교육은 모두 아내가 담당했고 덕분에 저는 병원 일과 커뮤니티에만 전념해 일할 수 있었다”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김 동문은 아들 둘에 딸 넷인데 큰 아들은 변호사, 작은 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큰 딸은 의사다. 둘째 사위 폴 최는 시카고의 법률회사 시들리 오스틴의 파트너 변호사로 하버드대 시카고 지역 동문회장을 거쳐 2015년 하버드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돼 한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손자 데릭 최 또한 하버드 재학시절 하버드 교지 크림슨의 편집인으로 선출돼 활약했다.

첫째딸 비비안은 아버지가 서울대 미주동창회 행사에 처음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대신해 동창회에 5000달러를 흔쾌히 기부했다.

김 동문은 예일대학병원을 거쳐 약 40여년 동안 흉곽외과 전문의를 지내면서 의학 분야에서 명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 코네티컷 주지사과 뉴헤이븐 시장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국 정부가 재미동포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무보험한인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코네티컷 한인회장을 지내면서 2세 역사 교육을 위한 한인회관 건립에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김창수, 안선숙(맨 앞줄) 부부 동문의 결혼 60주년을 맞아 하와이에 모인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둘째딸 맨왼쪽이 하버드 총동창회장을 지낸 둘째 사위 폴 최, 그 뒤가 손자 데릭 최.

한인 정체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김 동문은 “너무나 가난했던 1950년대 한국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우리 한인들이 열심히 일해 사업으로 성공하

고 전문가로서도 많은 분야에서 성공했는데 서로 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 미국에서 더욱 존경받고 빛이 날 것”이라며 동창회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돼주길 당부했다.

팬데믹 이후 첫 임원단 모임

뉴잉글랜드 지부

19대 집행부 주요 사업 논의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동창회(회장 김유경) 19대 임원단은 지난 7월 18일 김유경 신임 회장 자택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으로 모인 이번 모임에서는 새 임원단 소개와 함께 2021-2022년도 한해를 이끌어갈 계획들이 논의되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연례 행사로 가을 피크닉, 신년 하례식, 장학생 모집, 관악회 모임과 뉴잉글랜드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젊은 동문들의 적극

적 참여를 위한 임원회 구조 개선, 온라인을 활성화한 소모임 네트워크 지원, 관악회 운영위원 형성 필요성, 경조 위원회 조성,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과 지원과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토의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뉴잉글랜드 포럼의 초청 연사 및 주제, 그리고 회원 명부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과 계획 일정은 결정 되는대로 동창회 웹사이트에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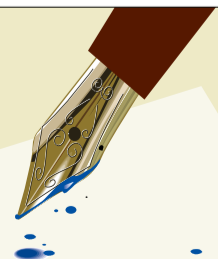
끝으로 임원들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하며 김유경 회장이 마련한 푸짐한 저녁식사를 즐겼다



김유경 회장 집에 모인 19대 임원진. 뒷줄 왼쪽부터 노동완 총무(공 84), 김정선 전 회장(문 66), 김유경 회장(음 72), 임영호 차기회장(공 72), 김광수 장학위원장(자 73), 아랫줄 왼쪽부터 김제성 재무(공 87), 이현구 학술간사(자 98), 신진우 섭외간사(농생 04).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지난 달 10일 열린 공대, 상대, 문리대 골프 모임에 참가한 김병연, 남종우, 박원준, 한효동 동문(맨 왼쪽 사진). 가운데 사진은 김상찬, 서치원 동문. 오른쪽 사진은 골프 모임에 참가한 동문들.

공대·상대·문리대 동문들 골프로 한자리

남가주 지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그리고 기다려 왔던 공대, 상대, 문리대 골프 모임이 지난 7월 10일, Brookside Golf Course에서 공대 주최로 개최되었다.

공대 전 회장이자,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서치원(공대 69) 동문이 주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날은 유난히 뜨거운 햇살이 온 골프장을 달구었지만, 44명의 Golfer들은 오로지 골프 공의 행방만을 쫓으며 더위를 이겨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노명호(공대 61), 서치원(공대 69), 김병연(공대 68), 성주경(상대 68), 김상찬(문리대 65), 이청광(상대 61) 동문 등 상임이사와 한효동(공대 58, 전 공대회장), 남종우(공대 64, 현 공대회장), 임춘택(상대 64, 현 상대회장), 박제환(문리대 72, 남가주 총동창회 차기회장) 등이며 게스트로는 민일기(약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홍성선(약대 72) 동문 등이 참가하여 열띤 시합을 벌였다.

저녁식사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용수산 한식당에서 Wine을 곁들인 부페를 즐

겼는데, 참석자들은 밤 늦게까지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6월 제30차 평의원회에서 미주동창회장에 취임한 노명호 회장을 다시 한 번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Champion: 강효남(공대67)

◇Medalist: 남_차기민(공대 85)

여_Mrs. 노명호(15 over)

◇근접상: 이청광, 지인수(상대 59)

◇Long distance: 김상찬

특히 Most Senior Award는 박원준(공대 53) 동문이 노익장을 과시했다. (18 over)

이 행사는 젊은 층 참여가 어느 때보다 많아 선배들의 환영을 받았고, 젊은 기운 때문인지 매우 신선한 분위기였다.

참석자는 김준경(상대77), 김창욱(상대 79), 최응환(상대80), 강호석(상대81), 강중구(상대82), 김영진(공대82), 송두일(상대 82), 한경욱(상대82), 이권병(상대83), 차기민(공대85) 동문 등 11명이다.

앞으로도 젊은 층의 행사 참여가 더욱 많아져서, 이 젊은이들이 동창회의, 나아가 서울대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젊은 서울대의 미래를 꿈 꾸어 본다. (홍선례 문화 및 광고국장)

남가주 서울대 법대 채규황 신임 회장 선출

지난 7월 15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용수산 한식당에서는 법과대학(회장 최진석, 법대 64) 정기 오찬모임이 개최되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모임이 1년 6개월 만에 재개되어서, 동문들은 반가운 교류를 했다.

전임 최진석 회장은 3년 넘게 법대 동창회를 위해 헌신 봉사했고, 이는 타대학에 귀감이 되었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열고, 한국의 박물관장을 초청하여 강연을 갖는다면, 노재성(법대 58) 동문 자택에서 홈콘서트를 열어 연주를 감상하기도 했다.

신임 회장으로는 채규황(법대 69) 동문이 선출되었다. 전임 최진석 회장의 전철을 이어 받고, 그에 못지 않은 회장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박경재(사대 64) 총영사와 노명호



지난 달 15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남가주 서울대 법대 정기 모임에서 동문들이 채규황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공대 61) 서울대 미주동창회장, 김병연(공대 68,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등이 초대되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홍선례 문화 및 광고국장)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친구들과 골프 치며 관광 “이만한 은퇴생활 없지요”

약대 15회 골프동호회



홍청일
(약대 57)
시카고 지부

골프는 동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취미 활동의 하나다. 여기에 여행까지 곁들여 함께 하는 동문그룹이 있다. 약대 57학번 홍청일 동문 동지들은 미국과 한국에 흩어져 살지만 매년 부부동반으로 골프 여행을 함께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해 유명 골프 관광지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내 명소들을 찾아 새로운 즐거움들을 만끽해왔다. ‘약대 15회 골프동호회’란 이름을 붙였는데 올해는 오하이오주 데이튼(Dayton)에 있는 National Museum of US Air Force 와 My Old Kentucky Home, 그리고 네바다주 오지에 있는 Fly Geysers 를 방문했다. 홍청일 동문이 사진과 함께 여행기를 전해왔다.

약대 동기 부부들의 새로운 삶

약대 15회(1957년 입학) 동기 중 골프애호가들은 2006년부터 거의 매년 미국 전역을 다니며 골프와 관광으로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다. ‘약대 15회 골프동호회’ 멤버들은 성기호(뉴욕), 원종민(DC), 이학은(라스베가스), 오찬수(로스엔젤레스) 그리고 필자인 홍청일(시카고)이며, 멀리 한국에서 박정식, 이세영, 노환성 부부들이 참가한다. 박정식 부부는 거의 매년 참석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에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모인 후 COVID-19으로 모이지 못했다.

이 모임은 골프보다는 관광에 무게를 두고 별로 이름 난 곳이 아닌 지역을 다니면서 미국의 다른 면을 찾아본다.

예를 들면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Lancaster, PA)의 Amish Town, 오하이오주 데이튼(Dayton, OH)의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formerly US Air Force Museum), 켄터키주의 Ark’s Encounter, Old Kentucky Home, 네바다주의 Fly Geysers 등이며 심지어는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St. Andrews, Scotland)와 에딘버러(Edinburgh),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 Ireland)에서도 골프와 관광을 즐겼다. 그 중 2017년과 2019년에 방문한 National



플라이 게이저 앞에서 약대 15회 골프여행 동호회 회원들이 기념 포즈를 취했다.

2006년부터 미 전역 다녀 한국서도 부부동반해 참여 세인트 앤드루스도 방문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Old Kentucky Home, 그리고 Fly Geysers를 소개한다.

380대 폭격기와 미사일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는 1923년 데이튼 교외에 설립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항공기와 미사일이 4개의 hangar에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라이트 형제(Wright Brothers)의 항공기로부터 시작해 2차세계대전 항공기 중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Fat Man을 떨어뜨린 B-29 Bockscar 폭격기, 한국동란 중 쌍벽을 이루었던 F-86 Sabre와 MIG-15 전투기, 닉슨 대통령과 그 이전 미국 대통령들의 전용기, Apollo 15 Command Module 등 무려



US Air force Museum을 방문한 약대 15회 골프여행 동호회 친구들.

380대가 넘는다. 항공기와 우주탐험 발전사와 미래 방향을 습득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므로 꼭 한번 관람하기를 추천한다.

‘켄터키 내 고향으로 보내주’

스테펜 포스터(Stephen Foster)의 “My Old Kentucky Home, Good Night”로 유명한 My Old Kentucky Home은 켄터키주 바즈타운(Bardstown, KY)에 위치하며 켄터키 주정부에서 1823년에 매입해 주립공원(State Park)으로 정하고 이 노래를 1928년 주가(State song)로 지정했다고 한다.

가이드 투어는 미국 북군 장교복을 입은 안내자의 “My Old Kentucky Home” 테너 솔로로 시작돼 저택안의 여러곳을 둘러본 후 끝났다. 내일 남부로 팔려가는 아버지의 운명도 모르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흑인노예가족을 묘사한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즐겨 불렀던 노래이다. 우리일행도 이 노래를 안내자 앞에서 답례로 불렀고 포스터 동상 앞에서도 불렀다.

뜨거운 간헐천 Fly Geysers

자연 경관을 좋아해 여러 곳에 다니며 사진을 찍었지만 Fly Geysers 사진을 본 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너무 오지라 혼자서 갈 용기가 없었는데 마침 2019년 동기 골프 모임을 네바다주 리노(Reno, NV)에서 가져서 그곳을 방문 할 수 있었다.

리노에서 Hwy 447 North를 따라 메마르고 가끔 소금이 깔려있는 밸리를 2시간(128마일) 운전해 네바다주 게라치(Gerlach, NV)에 도착했다.

여기서 미리 예약한 Guided Nature Walks Tour의 안내를 따라 약 20마일 북쪽에 있는 Fly Geysers와 동쪽의 Black Rock Desert 관광을 시작했다.

특이한 것은 이 간헐천(geyser)은 인간과 자연의 합작이라는 것이다. 1916년과 1964년에 그 주위의 넓고 건조한 지역에 관개용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지질 에너지 근원을 잘못 뚫어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물에 광물질이 엄청 많이 함유되어 있고 에너지용으로는 뜨겁지 않아 우물을 막았지만 뜨거운 물의 압력에 의해 계속 물이 나와 물속의 탄산칼슘과 실리카(silica)가 축적돼 간헐천 주위에 cone과 pool을 형성하게 됐다.

이 간헐천의 높이는 6피트(1.8m)이며 전체 언덕(mound) 크기는 25~30피트(7.6~9.1m)에 달한다. 물은 5피트(1.5m) 높이로 계속 뿜어낸다. 이 더운 물에는 여러가지 호열성 조류(thermophilic algae)가 주위의 바위를 덮어 녹색과 적색으로 채색하며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월과 10월사이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3시간의 guided nature walks tour로 관광할 수 있다. 서부활극에서만 보았던 야생마(mustang)들이 뛰 놀고 있었고, 이 건조하고 광활한 지역을 캘리포니아주처럼 개간해 마늘 등 채소농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COVID-19 때문에 우리 모임이 잠시 중단됐다. 우리나라가 8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약대 15회의 골프 관광 투어는 계속될 것이다.

추억에 젖고 와인 향에 취한 테메쿨라 와이너리



박제환
차기 남가주
총동창회장
(문리 75)

제 30차 미주평의원회의의 6월 25일~28일 일정의 마지막날. 로스엔젤레스 동남쪽, 차로 1시간 20분 거리의 테메쿨라로 떠나 는 와이너리 탐방. 아침식사후 주최측에서 대절된 버스 2대에 50명의 동문들이 함께 코리아타운 옥스포드 팰리스호텔을 떠나 낭만의 포도밭으로 향했다.

테메쿨라는 지난 십여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와이너리의 명소다. 중가주

나파밸리(Napa Valley) 와이너리와 견주며 샌디에고 북쪽의 광활한 구릉지대에 수십개의 대형 와이너리들이 확장일로에 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의대 김자성 동문이 우크렐레와 노래로 흥을 돋군다. 어린 시절의 동요부터 추억의 70 80 노래, 그리고 군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노래가 이어졌다. 의사 동문이 기타도 잘치고 노래도 프로 뺨치도록 잘하니 문무(?)를 겸비한 동문이다. 버스안의 동문들은 추억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며 세월을 되돌아 보는 버스여행에 취해간다.

문득, 행복했었던 청년시절의 한 추억으로 달려간다 - 대학교 4학년 졸업여행. 영문과와 사대 영어과가 함께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떠났다. 당시 영문과는 정원 18명중에 3명이 여학생이고 15명이 남자였다. 반면 사대는 남자가 10명에 여학생이 30명. 그야말로 꽃밭같은 여학생들 속에 여행길을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밤열차로 가는 중에 옆자리에 앉은 사대 여학생들은 밤새도록 동요와 다른 노래들을 이어 불렀다. 그 모습어 어쩔 천사같던지... 이제 노년에 접어들며 떠난 또다른 버스여행의 노래 속에서 그 옛날의 광경들을 더듬어본다.

LA는 80도 대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였으나 레이크 엘시노와 테메쿨라는 90도로 따끈따끈한 날씨. 테메쿨라 시내에 도착하니 선선한 바람이 솔솔 불어 더위 걱정을 덜어 주었다. 테메쿨라는 햇빛이 안개를 뚫고 비친다는 뜻이라고 한다. 올드타운 테메쿨라는 색다른 서부개척시대의 분위기가 있다. 버스에서 내린 동문들은 낮은 언덕들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짙은 햇빛을 만끽하며 거리를 관광했다. 이탈리아업소에서 단체로 먹은 젤라토는 별미.



테메쿨라 와이너리를 방문한 동문들이 한데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머랄드 크릭 포도원의 실내

제30차 LA 평의원 회의 대미 장식 동문 50명 노래 부르며 낭만 즐겨

다시 버스를 타고 곳곳의 와이너리를 지나며 목적지를 향하는 도중의 포도밭은 나즈막한 포도 나무의 행렬. 드디어 단체 예약이 된 와이너리에 도착했다. 포도밭으로 채워진 드넓은 구릉지대와 광야가 사방으로 펼쳐진 가운데 성곽처럼 와이너리가 서 있다. 오후의 태양이 넘어가며 와이너리는 석양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포도밭의 수많은 포도나무와 나무 울타리들, 그 언덕을 발강게 물들이며 누엇누엇 가라앉은 태양을 보며 동문들은 미국이나 한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포도밭 정취에 젖었다. 테메쿨라는 메도우(meadow) 지형이다. 샌디에고쪽 바다에서 밀려오는 습기와 준 글룸(June gloom 6월의 흐린 날씨)의 바다안개가 여인의 살결을 보호하듯 축축하게 포도알갱이들의 피부를 보호해준다.

이제 와인 시음 타임. 뜨거운 태양아래 의



어간 포도들이 술이 되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야외 페티오에 마련된 테이블들에 식탁보가 차려졌다. 와이너리 투어 책임자인 김기형 동문의 각종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며 맛보는 와인의 감칠맛. 아이 맛이야. 동문들의 미소가 환하다.

▲붉은 노을의 정취에 젖은 에머랄드 크릭의 와이너리
◀언덕을 배경으로 포도나무와 꽃이 가득한 와이너리의 페티오.

향긋한 와인에 동문들이 함께 하니 분위기는 무르익고. 코로나, 보이지 않는 감옥을 탈출한 해방감에서 오랜만에 마음껏 소리 내어 노래들을 부른다.

포도나무들은 농부의 뜻에 맞게 잘 다듬어지고 가지치를 당하며 자라야 하듯이 우리네 인생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며 살지 못한다.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나는 신에 의해 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내 삶이 얼마나 많이 가지치기를 당하며 살아왔던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황량하고 먼 인생길에 함께 가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는게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라는 것을 붉은 와인을 넘기며 되새겨 본다.

내 눈을 맑게 한 기적의 레몬즙

나의 건강지킴이



김경희
(가정대 71)
필라델피아 지부



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실명하게도 된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처방으로 적절한 약물의 주사를 맞으면 부기가 가라앉고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말에 처음엔 스테로이드 주사로 시작해서 새로운 약이 나오는 대로 약을 바꿔가며 주사를 맞았습니다. 완전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임시처방인 셈이었지요.

레이저 수술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처음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온 날 하루동안은 충혈도 되고 흐리기만 하던 눈이 시간이 지나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점점 흐려져 한달이 잘 때쯤엔 다시 갑갑한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매달 한번씩 의사에게 가서 검사하고, 사진 찍어 상태를 확인하고 주사 한 방 맞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언젠가 의사가 새로 나온 약이 있으니 사용해 보자고 해서 의사 말을 잘 듣는(?) 저는 두말 않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신약이라 값이 좀 비싸다며 제약회사가 1년

에 1만 불까지 리베이트를 해 준다고 해서 이 약을 계속 매달 맞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보험회사로부터 온 비용 내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약 값, 눈물 한 방 울도 안 될 적은 양의 약 가격이 5,000 불에 가깝고 의사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가 수백불이었습니다. 이걸 매달 내면서 살아야 한다니? 다행히 보험이 커버해주니 망정이지, 보험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이게 신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이거니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 서울대 동문들 중 남편 동기들 모임에서 한 분으로부터 레몬즙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 본인인 아침 저녁으로 레몬즙을 마시는데, 그렇게 건강이 좋을 수 없다며 혈액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가 정말 그렇게 보인다고 놀라워 했습니다.

“눈에는요?” 라는 제 질문에 그분은 이 레몬즙이 혈관을 맑게 하니까 효능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짜는 기구를 사서 걸쭉한 찌꺼기는 걸러내고 맑은 레몬물을 컵에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8년 4월입니다.

매일 같이 마시다 보니 의사한테 갈 날이

가까워지는데, 전처럼 눈이 갑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의사한테 갔고, 그러다 두 달 마다 가고, 또 석 달 마다 가고, 2019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주사를 맞고 3개월 마다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계속 정상입니다. 눈으로 연결된 실핏줄이 막혀 부어오르던 증세가 사라진 거지요.

레몬이 이 실핏줄에 쌓여있던 clot을 맑게 청소한 겁니다. 의사도 놀라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개월 만에 검사 받으러 갈 건데 아직 눈이 멀었습니다. 이런 과정과 효과를 옆에서 지켜 본 남편도 1년 전부터는 함께 마시며 이제는 안경을 벗어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주변에 권하면 신 맛에 위가 쓰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남편은 그냥 약 삼키듯이 와인 한 잔 만큼의 즙을 꿀꺽 삼키곤 합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작은 국 사발 하나 만큼 마십니다.

레몬즙으로 맑아진 눈!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어보세요.

김경희는

모교에서 대학원 졸업 후 도미. 심리학을 공부한 후 지적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정부(County)의 공무원으로 35년간 일하고 작년말로 은퇴했습니다.

토막상식

‘방울뱀’이 미국의 국기?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저게 뭐지?’ 하고 놀랐을 것 같다. 지난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의사당을 난입할 때 일부 시위자들이 들고 있던 깃발이다.

노란색 바탕의 깃발 한 가운데 방울뱀이 그려져 있다. 방울뱀 밑에 ‘Don’t Tread on Me’, 곧 ‘나를 밟지 마라’는 슬로건이 쓰여있다. 워낙 유명한 문구여서 첫자를 따 ‘DTOM’ (디텡)이라고도 부른다.

‘방울뱀’을 들고 당당히 의사당으로 진격하는 시위대. 대체 이 깃발은 뭘까?

멀리 독립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개드스텐. 조지 워싱턴의 각별한 신임을 얻은 그는 혁혁한 전공을 세워 ‘건국의 아버지’ 반열에 오른다.

그가 바로 ‘개드스텐 플래그(Gads-



den Flag)’를 만든 장본인이다. 누구건 미국의 독립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독을 뿜어 응징하겠다는 다부진 결의를 담아냈다. 일부 강성 우익세력은 이 플래그가 미국의 진정한 국기라고 주장한다.

이 깃발은 지난 2011년 ‘네이비 실’ 해군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 그를 사살했을 때도 화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긴급 발표하자 새벽녘인데도 수만 인파가 뉴욕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성조기와 함께 ‘개드스텐 플래그’를 흔들어댔다. 한날 테러리스트 주제에 감히 ‘방울뱀’을 건드려?

건강 관리하듯 재정도 관리해야 노후가 행복



송미선
(음대 89)

파이낸셜 플래닝 개업

음대 89학번 송미선(LOIS MISUN KIM)입니다. 이번에 제가 재정 관리분야의 뉴오피스를 오픈지카운티 지역인 풀러튼에 열게 됐습니다. 20여명의 에이전트를 두고 미국 굴지의 AIG, FIDELITY& GUARENITY, ANICO 등 10여개의 금융회사와 연계해 고객에게 맞는 FIANACIAL PLAN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파파존스 피자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6개의 체인점을 통해 70여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다가 불경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10년만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점을 통해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체인점

을 하나씩 더 열며 무리하게 확장하다 비지니스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의 경험을 통해 안전한 투자와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주식을 통해 한방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한방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빈털털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 삶의 과정에서 얻어진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FINANCIAL PLANING 이라는 컨설팅 일을 하게 된 것도 어언 7년 정도 되어 갑니다. 편안한 노후의 기본은 평생을 보장하는 고정연금과 만약을 대비한 롱텀케어입니다.

우리는 매년 아무 일 없어도 건강 검진하고 때에 맞춰 예방주사도 맞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듯 재정도 관리해야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웹사이트인 financialchris-lois.com을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크리스 김 재정 이라고 치시면 USKN 칼럼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30차 평의원 회의 세미나 주제

암치료 정밀의약 어디까지 왔는가?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
(사대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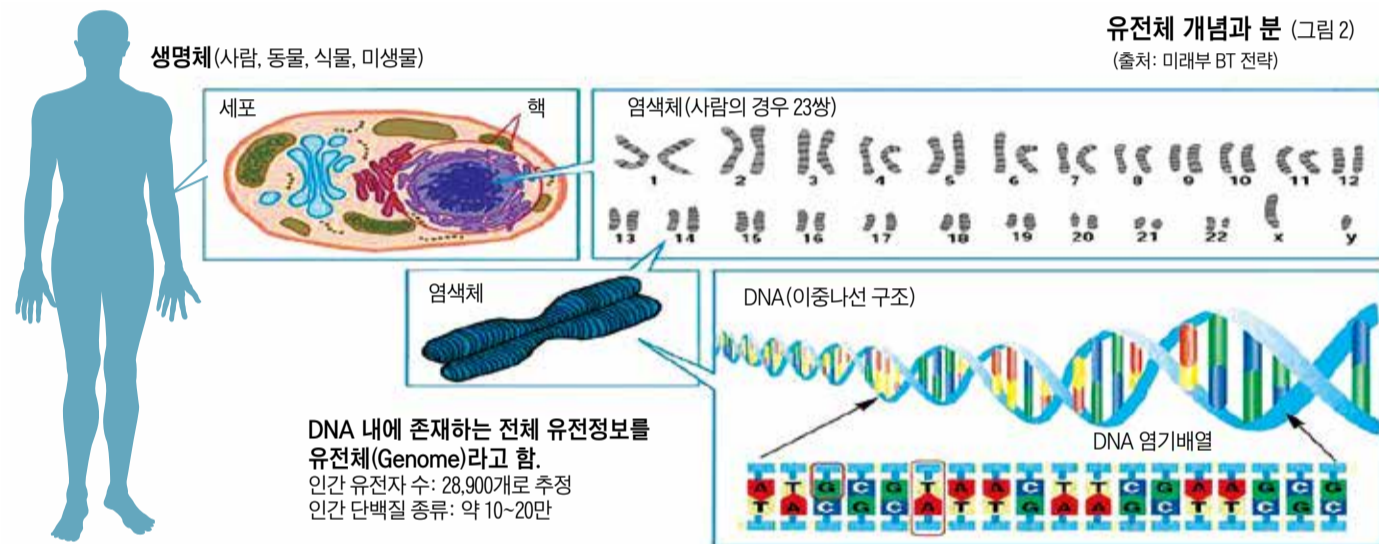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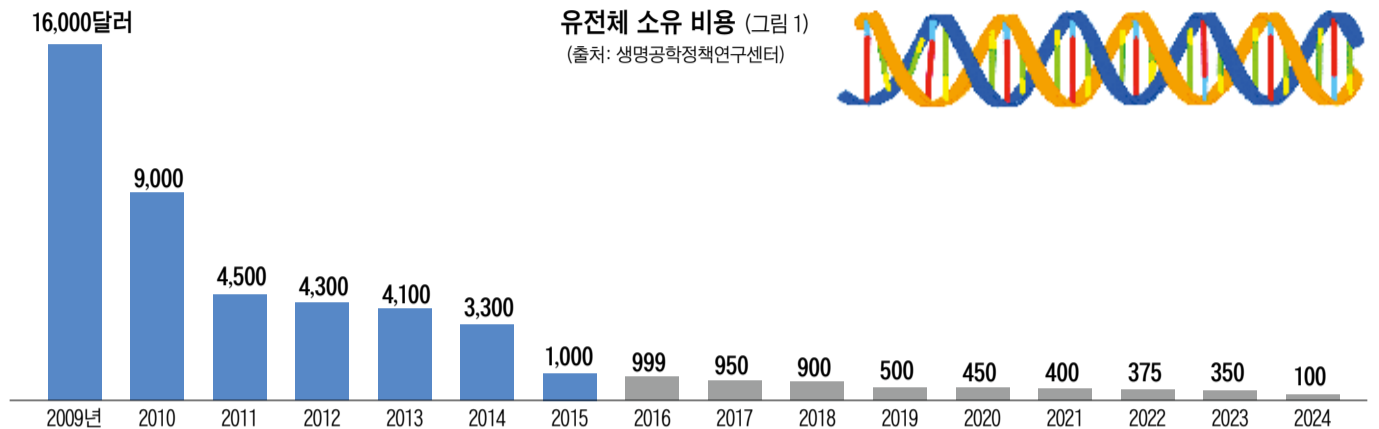
1990년 미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지도 만들기 위해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3조원의 비용을 들여 2003년 인간유전체(Human Genome) 해독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지난 20년 유전자 분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유전자 지도 해독비용이 2000년 초반 1억 달러, 10년 후 애플 창업자가 웨장암 유전정보를 얻는데 10만불 정도로 낮아졌고, 현재는 50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개인이 본인의 유전자 지도를 소유할 수 있다(그림 1). 분석 기술의 발달 속도를 보면, 앞으로 그 비용은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용이 저렴해지면 개인이 본인의 유전자 지도 소유에 부담이 적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유전자 지도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유전자 지도를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알고 미리 대비 할 수 있게 되고, 암세포를 조기에 분석해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암에 걸렸을 때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암세포 DNA와 정상 DNA와 비교를 통해 발암 유전자의 제거 및 억제를 통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표적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게놈 및 임상데이터를 통해 혁신 신약개발을 가속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유전체 해독과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 기능 연구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유전적 소인에 맞춰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는 정밀 의약(Precision Medicines)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밀의학이란 기존의 임상병리학과 신약 개발에 분자 의학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진단부터 예방, 치료제 개발, 치료에 이르기 까지 모든 단계를 유전, 환경, 생물학적 특성 등 환자 개인의 조건에 맞게 실시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다. 개인의 일생을 살면서 취약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생활 습관에 따른 유전적 위험 및 특징을 계산해 맞춤형 헬스케어 가능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진료 영역에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특히 희귀질환 및 암 치료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암 예방 및



치료분야에서는 유방암과 폐암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암예방의 대표적인 경우가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다. 그녀는 지난 2013년도에 아직 발병하지 않은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는 자신이 유방암 관련 유전자인 BRCA의 변이로 암에 걸릴 유전학적 확률이 87%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2년후에는 BRCA유전자 또한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40%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아 난소와 나팔관도 과감히 절제하여 암에 대한 공포없는 삶을 살고 있다. 안타깝게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본인의 웨장암 유전자 해독을 하였으나 발견한 암 유전자에 대한 표적치료제를 발명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예방적 절제술의 배경에는 정밀의료 기반의 DNA와 단백질 분석 기술이 날로 발전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젤리나 졸리의 수술은 전 세계 대중들에게 정밀의료 기반의 유전자 분석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세계 많은 여성들이 BRCA유전자 검사를 받고 암 예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바 '졸리 효과'였다.

유전자 분석을 이해 하기 위해 우선 유전

체 개념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는 핵이 있다(그림 2). 이 세포 핵 속에 유전 정보를 담은 실타레 같은 염색체가 23쌍(여: 22+X, 남: 22+Y) 들어 있다.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 구성되어 있고 DNA가 유전정보 전달의 핵심정보의 구성요소이다.

DNA가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의 정보 하나하나가 바로 유전자이다. DNA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일정한 가격으로 붙어 있는 두 리본이 이중 나선형으로 배배 꼬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리본 사이에 붙어 있는 막대기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조각이 결합된 것이고, 이 각각의 조각을 염기라고 한다. 컴퓨터는 0과 1로 된 2진수를 언어로 사용하는 반면, DNA의 언어는 아데닌(A), 구아닌(G), 티민(T), 시토신이라는 염기로 구성된 4진수로 이루어진다.

마치 컴퓨터의 0과 1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컴퓨터 신호를 만들 듯이, 네개의 염기의 순서 또는 배열로 이루어진 통합적인 유전체가 생물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인간의 경우 30억개의 염기쌍을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 수는 3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전자가 우리의 피부색, 눈색, 머

리색, 눈모양, 코모양 및 향 후 생길 수 있는 질병 등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30억개의 엄청난 염기쌍 중에 사람들간의 염기쌍, 서열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아 냈다. 개인간 99.97%가 유사하고 0.03%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 이 0.03% 아주 작은 차이가 어떤 사람은 금발에 파란 눈을, 어떤 사람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를 가지게 되어 다양한 인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보시듯이 미국의 3대통령간의 유전체 차이는 0.03% 밖에 안되는데 겉모습은 많은 차이가 많이 남을 볼 수 있다. 이런 겉모습 뿐만 아니라 향 후 세사람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확률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어떤 대통령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잘 걸리고 어떤 대통령은 암으로 고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도 할 것이다. 정밀의약은 이와 같이 0.03%의 차이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더 많은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대표는 세미나에서 유전병, 유방암, 자궁암, 폐암의 예방과 치료에 어떻게 정밀의학이 활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30차 평의원 회의 세미나 주제

추상미술은 영혼과 영혼의 교감



장소현
평론가
(미대 65)

뭐가 뭔지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추상미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당연하다. 추상미술은 설명이나 해석을 거부하는 미술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사물이나 형태를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다.

추상미술에 대해 사전은 이렇게 설명한다.

추상미술(抽象美術)은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점, 선, 면, 색과 같은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한 미술의 한 가지 흐름이다. 형이나 색은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느낌을 가지고 있어, 형과 색의 어울림만으로도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추상미술을 시작했다고 일컬어지는 칸딘스키는 한층 더 강경하다. “객관성이라든가 어떤 대상의 묘사라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라고 규정하며, 설명적 요소나 서사구조 즉 문학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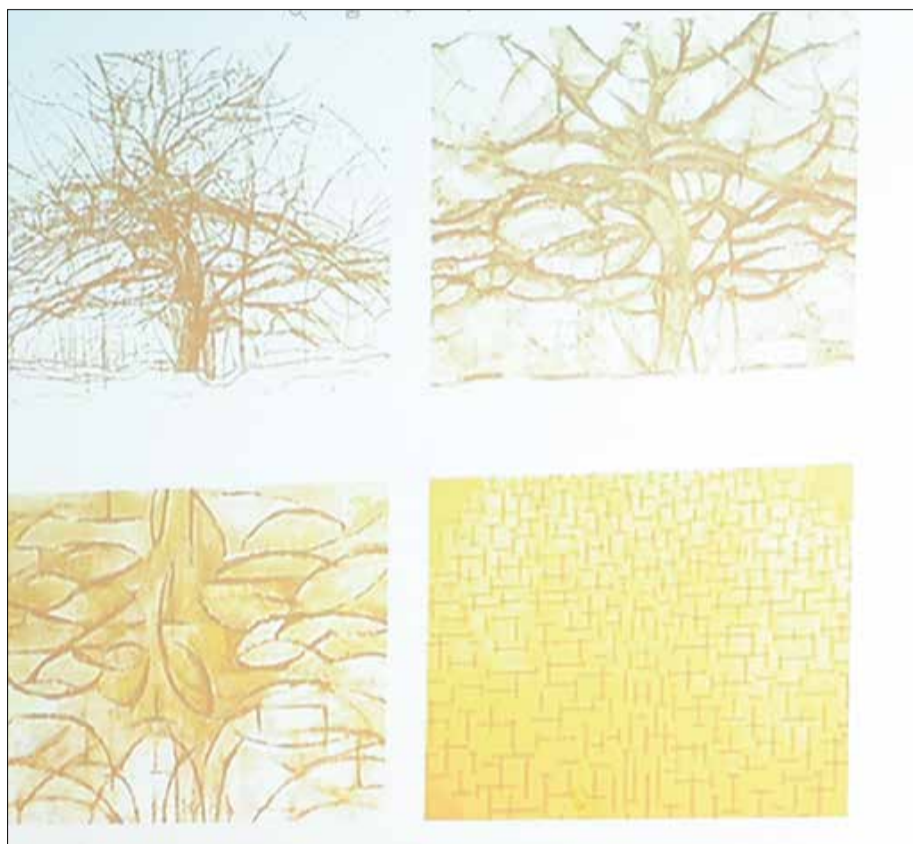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우선 무엇을 그렸는가를 찾아 이해하고 납득하려 들게 마련이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 인류 미술의 긴 역사 동안 미술은 대상을 묘사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이야기해왔다. 사실의 묘사가 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 적어도 사진이 발명되기까지는 그랬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형태를 찾고 이해하려 드는 것은 본능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 ‘정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니, 미술작품이라는 훌륭한 시각정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으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추상미술은 그림에서 이야기나 설명을 과감하게 밀어내버렸다. 순수한 조형만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수밖에 없다.

결국, 추상미술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개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놓고 누구나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셈이다. 하지만, 제멋에 겨워 웅얼거리는 혼잣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추상미술을 잘 모르면 교



장소현 동문이 지난 6월 25일 LA에서 열린 제30차 평의원 회의 세미나에서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보인 추상미술 작품들.

양이 모자라는 인간 취급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알곳은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질게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럴 필요 없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것이 올바른 미술감상 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우리 시대 최고의 미술가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

“추상예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구체적인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현실적인 외관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피카소는 미술에 관한 것이라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작품을 남겼는데, 순수 추상화는 안 그렸다. 왜일까? 결국 피카소는 메시지, 즉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서사구조 즉 이야기와 조형성이 미술을 굴리는 두 바퀴라는 믿음, 그 두 가지가 꼭 맞물리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

추상미술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현대미술의 한 흐름이다. 1910년 경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시작했다고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전해온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다양한 미술운동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술인 셈이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남짓밖에 안된 신생 미술 양식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영향력으로 세력을 넓혀나

가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후 미국 뉴욕으로 넘어가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했고,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는 동안 미술은 추상미술과 구상미술로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이처럼 막강하고 혁명적인 흐름은 없었다.

그 배경에는 현대로 넘어가는 격변기의 정신적 변화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신분석학 같은 학문의 발달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관심도 크게 작용했다. 가령 사랑, 평화, 꿈, 낭만, 분노, 그리움, 외로움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우리 현실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자각이다. 그래서, 추상미술을 ‘리얼리즘의 한 종류’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저 작가가 느끼는 대로 그릴 따름이다.

그 결과 추상미술을 하는 오늘날의 화가는 자기만 아는 언어를 일방적으로 던져놓고는 알아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오만한 자세를 취하며, 그것이 차원 높은 예술적 개성이라고 우기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추상미술로는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져가는 세상의 사상을 제대로 담을 수 없게 되었다. 개인적이고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말과 자세한 설명

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개념미술,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같은 서사구조를 가진 미술이다.

한국의 추상미술

한국의 현대미술에서도 추상미술이 단연 압도적인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 강점기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미처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된 허허벌판에 이번에는 추상미술이라는 서양의 물결이 들이닥쳤다. 유럽의 앵포르멜이니 미국의 액션 페인팅, 추상표현주의 같은 도도한 물결이다.

고리타분한 국전(國展)이나 일본 넘새 풍기는 아카데미즘에 반기를 든 젊은 예술가들에게 추상미술은 단비처럼 반가운 것이었다.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따라하기에 열중했다. 문제는 한국 문화 특유의 쓸림현상이다. 너도 나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추상미술에 매달렸다. 미술교육도 그랬다. 미술대학이라는 데엘 들어가 보니 모두들 추상화라는 걸 그리고 있으니,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따라 그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왜 추상미술을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겨를도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추상미술 일색이 되어버린 미술계에서 다른 경향의 작품들은 촌스러운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 결과 미술은 말을 잃었다. 내가 보기에 그걸 고치는 데는 앞으로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무튼, 한국의 추상미술은 대단한 열기와 다양한 모습으로 독자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나마 뛰어난 작가들 덕분에 한국적 추상미술이 모습을 갖추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단색화 같은 것이 좋은 예다.

추상미술과 관객

모든 예술은 관객과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관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추상미술 앞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마중기 시인의 글 한 구절을 인용한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무식으로 돌리고 그 그림 앞을 떠납니다... (중략)... 나는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내 실력이 왜 이 정도냐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중략)... 다른 누군가가 내가 너무 모른다고 해도 나는 그런 만의 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술을 교양이나 지식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영혼과 영혼의 교감이라고 나는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중기산문집 (아름다움, 그숨은숨결)에서

제30차 평의원 회의 세미나 주제 **차세대 배터리 위해선 신소재 개발 필수**



황경순
텍사스 오스틴대
석좌교수
(공대 87)



황경순 박사가 지난 6월 25일 LA에서 열린 제30차 평의원 회의에서 새로운 첨단소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새로운 첨단소재 개발은 다양한 산업의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정 에너지 기술이 기존의 화석 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재료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개선된 새로운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소재게놈이니셔티브(Material Genome Initiative)에서 강조되었듯이 슈퍼컴퓨팅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 속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슈퍼컴퓨터 연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전산모사(computer simulation) 방법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화학적 직관과 시행착오적 실험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소재 설계 및 개발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전산재료과학(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소재의 특성 및 복잡한 전기화학반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계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벌크상태의 물질 특성은 주로 결정구조나 화학적 조성에 의해 결정되고 나노미터(nm) 크기 규모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생겨 벌크상태에 비해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 참고로 신문 한장의 두께는 10만 nm이다. 나노재료는 결정이나 입자 크기가 100nm 이하의 물질을 말하며 물성 조절이 용이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응용이 기대되는 신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입자 크기, 구조, 성분 등을 바꾸면 물성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완벽히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특

성을 가진 신소재 개발에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용도로도 지난 수년간 다양한 나노복합소재가 합성되고 테스트 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재료의 특성과 성능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관련 소재의 개발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실험을 통해 소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반응 특성에 관한 다양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만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종종 논란의 여지를 수반한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직접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면서 물성과 반응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계산을 통한 연구 방법이 제안되었고 최근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원자단위의 조작과 변형이 재료의 특성과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이론이나 전산학적 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스케일의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연속체/분자/양자 역학이 결합된 이른바 멀티스케일 모델링 기법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멀티스케일 모델링에는 아직 많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 기반의 제일원리계산(first-

principles calculation)은 화학반응 메커니즘과 물질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이해는 소재 및 공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최적화함으로써 소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LIB, Lithium Ion Battery)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 소재의 종류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은 달라진다. 기존 소재의 최적화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최대치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LIB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동차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처럼 더 높은 전기에너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응용분야에서는 LIB보다 향상된 수명, 출력, 안정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자체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구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배터리 충·방전시 전극/전해질 계면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책마련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음극 표면에서 환원반응으로 전해질이 분해되어 계면층(solid

electrolyte interphase)이 형성되는데 이 계면층 형태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은 달라진다. 특히 음극 표면에 리튬 결정이 형성되고 점점 쌓여 나무가지 모양으로 성장하는 덴드라이트(dendrite) 현상은 LIB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고 성능저하와 폭발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용량 및 안정성 측면에서 LIB에 비해 장점을 가진 전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ASLMB, All Solid State Lithium Metal Battery)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리튬 메탈과 전고체사이에서의 물리적 접촉불량 및 전기화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속한 계면저항의 증가 등의 문제로 ASLMB 실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계면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계산과학연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의 전자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산과학 연구는 슈퍼컴퓨터 성능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고 반응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16대 노명호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치원(공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Refrigeration Reinvented

Outstanding Reliability / Superior Functionality / Excellent Convenience



Turbo Air Group is a global commercial refrigeration manufacturer with 18 warehouse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7 factories located in U.S.A, Korea, China, and Vietnam. Our products are sold in 70 countries worldwide.



Eco-Friendly Turbo Air

Natural refrigerant is now used in all Turbo Air products.

Replaced Hydrocarbon Refrigerants (R-290/R-600a)
Decreased energy consumption by an average of 25%
Registered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 Energy Star

Patented Self-Cleaning Condenser

The 'Self-Cleaning Condenser' cleans the condenser with a rotating brush that moves up and down 2-3 times a day, preventing any dust build-up and making it possible to always maintain the highest efficiency while saving additional energy.



Let's Watch Turbo Air's Self-Cleaning Condenser Video!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총 모금액
TOTAL

\$875,918

<모교발전기금 포함>

종신이사 (\$3,000 이상)

■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 골드 이사 \$10,000 이상 ■ 실버 이사 \$6,000 이상

◇ 남가주 ◇ 강신용(사대 73) 권기홍(의대 60) 곽웅길(문리 59) 김경숙(간호 68) 김동훈(의대 71) 김보연(간호 63) 김설호(법대 64) 김재영(농대 62) 노명호(공대 61) 노재성(법대 58) 박명근(상대 63) 박윤수(문리 48) 박종수(수의 58) 박원준(공대 53) 방명진(공대 73) 서동영(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치원(공대 69) 심상은(상대 54) 심화섭(약대 61) 오재인(치대 33) 오홍조(치대 56)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종도(공대 66) 이청광(상대 61) **이홍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용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동구(공대 57) 정임현(간호 72) **정재훈(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6) 차종환(사대 54) 하기환(공대 66) **한귀희(미대 68)**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박창규(약대 59)** 조한원(의대 57) 김기형(상대 75) 임천빈(문리 61) **김일영(의대 65)** **성낙호(치대 63)** **故 한창섭(문리 57)** ◇ 북가주 ◇ **김정희(음대 56)** 손석보(공대 68) 민병근(공대 65) 전해경(문리 67) 윤낙승(의대 60) 김태환(의대 58) 심영춘(수의 64) ◇ 뉴욕 ◇ 김광호(문리 62) 신응남(농대 70) **오인석(법대 58)** 윤정옥(약대 50) 이기영(농대 70) 이진구(농대 60) 이재덕(법대 60) 이준행(공대 48) 추재욱(의대 57) 고애자(음대 57) 강애드워드(사대 61) 최영태(문리 67) 최수용(상대 55) 이재량(상대 61) 석창호(의대 66) 김승호(공대 71) 김종률(사대 51) 윤종숙(약대 66) 김해암(의대 52) 한태진(의대 58) 김한중(의대 56) 허선행(의대 58) 이대영(문리 64) ◇ 뉴잉글랜드 ◇ 고일석(보건 69) 김문소(수의 61) 박경민(의대 53) **박영철(농대 64)** 오세경(약대 61) **윤상래(수의 62)** 윤선홍(치대 64) **정선주(간호 68)** 정정욱(의대 60) 정태영(문리 71) 홍지복(간호 70) 김용구(공대 66) 이의인(공대 68) 전신의(문리 57) 최홍균(공대 69) 전신의(문리 57) ◇ 워싱턴 DC ◇ 강연식(사대 58) 권기현(사대 53) 류재풍(법대 60) 민홍기(문리 61) 방은호(약대 43) 오인환(문리 63) ◇ 워싱턴주 ◇ 이회백(의대 55) ◇ 시카고 ◇ 남상용(공대 52) 심상구(상대 63) 이용락(공대 48) 이재희(치대 67) 장윤일(공대 60) 정태(의대 57) 최의필(의대 53) 한재은(의대 59) **故 고광선(공대 57)** **양남주(명예이사)** 이명자(간호 74) ◇ 루이지애나 ◇ **강영빈(문리 58)** ◇ 미네소타 ◇ 권관식(공대 61) 남세현(공대 67) 조형준(문리 62) 변우진(인문 81) ◇ 오하이오 ◇ 김용현(경원 66) 황호숙(사대 65) ◇ 중부텍사스 ◇ 이광연(공대 60) ◇ 조지아 ◇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 66)** 김용건(문리 48) **김태형(의대 57)** **김경숙(사대 64)** ◇ 필라델피아 ◇ 고병은(문리 55) 서중민(공대 64) 손재욱(가정 77) 이만택(의대 52) 주기목(수의 68) 신의석(공대 53) 김영우(공대 55) 신성식(공대 56) 김현영(수의 58) ◇ 플로리다 ◇ 김종권(의대 63) ◇ 네바다 ◇ **정상진(상대 59)** ◇ 하트랜드 ◇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교락(의대 53) 이상강(의대 70) 배규영(사대 68) 오명순(가정 69) ◇ 메릴랜드 ◇ 최지원(의대 61) 공순옥(간호 66) ◇ 휴스턴 ◇ 박태우(공대 64) 조시호(문리 59)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7월 후원자
감사합니다

종신이사

김일영(의대 65)
남가주

성낙호(치대 63)
남가주

심영춘(수의대 64)
북가주

이대영(문리대 64)
뉴욕

고종성(사대 75)
뉴잉글랜드

최홍균(공대 69)
뉴잉글랜드

종신이사 추대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일영 (의대 65)

청주고를 졸업하고 1965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 1971년 졸업했다. 충북 청원군 보건소장 역임 후 도미해 뉴욕과 오하이오에서 레지던트, 펠로우십을 마치고 1979년 LA에서 심장내과를 개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같은 심장내과 전문의인 딸이 합류해 ‘풍부한 임상경험과 정확한 진단’으로 ‘아빠와 딸이 사랑과 정

성으로 돌보아 드리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김 동문은 자식 농사와 관련해 1999년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네 남매 중 세 명이 USA 투데이가 해마다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 고교생’에 3년 연속으로 뽑혀 화제가 됐다. 네 남매는 모두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김 동문은 1991년 LA에서 새한은행 설립을 주도하며 이사장직을 역임했으며 그가 이사장일 때 새한은행은 월셔은행과 합병했다. 김 동문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지에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로도 유명하다. 2002년~2003년엔 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지냈다.

“봉사하며 삶의 지혜 얻지요”

성낙호 (치대 64)

똑똑똑... 갑작스런 노크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문 쪽에 쏠렸다. 낮익은 얼굴이 전혀 아니었다. “동창회 사무실이 맞나요.”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분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다.

며칠 전에 들렸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헛걸음을 했다고 오늘이 두번째라고 했다. “동창회보에 사무실 전화번호 없이 그냥 주소만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전화번호가 빠져있었다.

그 분이 두 번씩이나 사무실을 찾아온 건 종신이사 회비를 내기 위해서였다. 권유도 안했는데 스스로 찾아와 종신회원에 가입한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 바로 성낙호 동문(치대 63학번) 얘기다.

원래 종신이사 회비는 3,000 달러다. 그런데 이날 성 동문이 낸 회비는 1만 달러. 예상은 깬 액수였다. ‘치대 출신 이사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가 성 동문이 사무실을 찾게 된 직접적인 동기였다.

알고 보면 성 동문은 한인사회의 올드 타이머다. 그가 미국 유학을 온 해는 1978년. 한국서 이미 군의관을 거쳐 박사과정까지 끝냈지만 USC 치과대학에서 3년 여를 더 공부했다. 의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였다.

졸업 후 히스패닉계와 흑인 등 소수계가 밀집한 동네에서 개업했다. 그때의 경험이 성 동문으로하여금 의료봉사에 눈을 뜨게했는지도 모른다.



노명호(오른쪽) 미주동창회장에게 종신이사회비를 건네는 성낙호 동문.

의료팀 꾸려 멕시코 오지 방문 ‘레스토넵’에서도 꾸준히 활동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남미의 폐루를 비롯해 멕시코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작년 초에도 비행기표까지 사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멕시코 행을 취소하고 말았다.

성 동문은 한의사와 간호사를 포함, 10여 명의 의료봉사단을 꾸려 진료에 나선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오지 포토이찬에서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성낙호 동문.

성 동문 일행이 주로 의료봉사를 가는 곳은 포토이찬(Potoichan)이다.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무려 8시간을 가야한다. 멕시코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

네다. 이곳 수녀원에 임시 클리닉을 마련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

성 동문은 의료구호사업이 목적이 아니라만 오히려 현지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운다고 했다.

“언젠가 50대 아저씨 한 분이 아이를 데려와 치료를 해준 적이 있어요. 다음날 그 분이 너무 고맙다며 자신이 밭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한아름 들고 찾아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까. 그처럼 감동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포토이찬은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 중의 오지다. 한번 클리닉에 오려면 꼬박 하루를 걸어야 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고맙다고 다시 찾아왔으니 눈물이 안 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고 한다. 팬데믹이 빨리 끝나야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을텐데.

성 동문의 의료봉사는 이곳 LA서도 이어진다. ‘레스토넵(Lestonnac) 프리 클리닉’에도 1주일에 한 번은 들러 진료를 해 준다. 레스토넵은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의료봉사기관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수혜 대상이다.

여러곳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 동문은 흑인 밀집 거주지역인 캄튼을 택했다. 하지만 레스토넵마저 코비드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

“남을 돕는 것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아요. 엔돌핀이 펄펄 쏟아져 나오도록 할링이 됩니다.”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21. 7. 1 ~ 2022. 6. 30) (2차 회기: 2022. 7. 1 ~ 2023. 6. 30)

※ 볼드는 1, 2차 회비

b

남가주 S.CA/NV 김영덕 (법대58) 강호석 (상대 81) 김원탁 (공대 65) 권오형 (사대 61) 강경수 (법대 58) 강중경 (공대 48) 강춘자 (간호 69) 강희창 (공대 57) 권기상 (경영 72) 김강수 (문리 59) 김경수 (치대 58) 김경숙 (간호 68) 김난영 (공대 53) 김동산 (법대 59) 김병완 (공대 58) 김성호 (법대 64) 김성환 (의대 65) 김수영 (사대 57) 김순자 (치대 57) 김영도 (공대 67) 김영봉 (사대 60) 김일영 (의대 65) 김자경 (사대 60) 김자성 (의대 79) 김준일 (공대 62) 김태윤 (법대 53) 김현순 (간호 69) 김화섭 (의대 55) 김희창 (공대 64) 나두섭 (의대 66) 나만주 (음대 65) 노명호 (공대 61) 류정순 (가정 69) 문인일 (공대 51) 방명진 (공대 73) 박재환 (문대 75) 박인창 (농대 65) 박명근 (상대 63) 박민식 (수의 65) 박임하 (치대 56) 박찬호 (농대 63) 배운숙 (미대 65) 배동완 (공대 65) 배병욱 (음대 58)	배효식 (문리 52) 신복례 (문대 83) 성낙호 (치대 63) 서명희 (농대 67) 안승호 (공대 71) 양명교 (의대 55) 양승문 (공대65) 양운택 (의대 58) 오선웅 (의대 63) 오찬수 (약대) 유이종 (농대 74) 윤경민 (법대 55) 윤석철 (상대 60) 윤희성 (치대 65) 육태식 (의대 61) 이건섭 (치대 54) 이범모 (치대 74) 이종모 (간호 69) 이휘영 (법대 59) 이상근 (경영 84) 이종영 (음대 58) 이호진 (간호 74) 이영신 (간호 77) 이익삼 (사대 58) 이범식 (공대 61) 이소희 (의대 61) 이영일 (문리 53) 이정근 (사대 60) 이탁성 (공대 56) 이승훈 (상대 74) 이재룡 (공대 71) 이성자 (간호 76) 이준호 (상대 65) 이 호 (음대 92) 이휘영 (법대 59) 임동규 (미대 57) 임문빈 (상대 58) 임춘수 (의대 57) 장원경 (미대 73) 장정용 (미대 64) 전낙관 (사대 60) 전상욱 (사대 52) 정균희 (의대 64) 전경배 (의대 75)	전원일 (의대 77) 정 신 (보건 92) 정예현 (상대 63) 정연웅 (상대 63) 정 황 (공대 64) 조동준 (의대 57) 조만연 (상대 58) 조상호 (농대 51) 진석호 (공대 04) 추교훈 (농대 63) 최종권 (문대 59) 최영근 (사범대) 최영구 (상대 61) 홍선례 (음대 70) 한동수 (의대 60) 북가주 SAN FRANCISCO 김명환 (문리 67) 김은용 (공대 62) 김희경 (음대 73) 강재호 (상대 57) 남광순 (음대 64) 민병덕 (상대 69) 박영욱 (사범 55) 박성수 (공대 59) 위장호 (의대 73) 이정남 (공대 63) 이민영 (문리 57) 윤성희 (사대 58) 임승쾌 (문리 66) 신규명 (공대 64) 심영춘 (수의 64) 조태목 (사범 60) 정유석 (의대 58) 정규남 (공대 52) 전병련 (공대 54) 탁은숙 (문리 54) 뉴멕시코 최창송 (의대 52) 뉴욕 NJ/NY 김영철 (의대 55) 김용연 (문대 63)	김영희 (간호 54) 강영선 (공대 50) 곽선섭 (공대 61) 권문웅 (미대 61) 권영대 (공대 69) 김광호 (의대 66) 김영수 (법대 66) 김석식 (의대 58) 김영무 (공대 75) 김완주 (의대 54) 김완주 (의대 54) 김정희 (간호 69) 김중원 (사대 58) 김진자 (간호 60) 김중현 (법대) 김태일 (공대 68) 김해암 (의대 52) 문소자 (음대 60) 문석면 (의대 52) 리준무 (음대 65) 박순영 (법대 56)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손규성 (사범 61) 신두식 (의대 58) 양거영 (의대 48) 양명자 (사대 63) 원인순 (문리 67) 유재룡 (공대 58) 육순재 (의대 63) 윤 철 (문대 54) 윤인숙 (간호 63) 윤중숙 (약대 66) 윤현남 (공대 64) 이상무 (의대 56) 이문봉 (미대 76) 이강욱 (공대 70) 이명준 (공대 72) 이성구 (약대 56) 이승일 (경영대학원 66) 이상원 (62) 이용대 (약대) 이유성 (사대 57) 이정은 (의대 58) 이중석 (상대 57)	이중호 (의대 63) 전병삼 (약대 54) 전성진 (사대 54) 정동성 (상대 58) 조규용 (의대 59) 조태환 (상대 56) 주의돈 (의대 58) 차국만 (상대 56) 한승순 (간호 70) 한영수 (의대 61) 한병용 (문대 71) 한태진 (의대 58) 허병렬 (사범 40) 허선행 (의대 58) 허영자 (약대 63) 현영수 (음대 61) 뉴잉글랜드 MA/RI/NH/ME/VT 김문소 (수의대 61) 김만옥 (약대 56) 김정선 (문리 66) 박종승 (의대 56) 송미자 (농대 62) 이준영 (치대 74) 이영인 (사대 74) 이의인 (공대 68) 우상영 장용복 (공대 58) 최홍균 (공대 69) 홍영석 (공대 58) 라스베가스 LV/NV 김영중 (치대 66) 미네소타 이창재 (문리 61) 주환수 (수의대 62) 차재호 (농대 84) 샌디에고 시카고 IL/IN/WI/MI 김병윤 (문리 65) 김성일 (공대 68)	김승주 (간호 69) 김용환 (공대 71) 김윤하 (공대 66) 김정화 (음대 56) 고병철 (법대 55) 남성희 (의대 56) 민영기 (공대 65) 박정일 (의대 61) 박창욱 (공대 56) 소진문 (치대 58) 신석균 (문대 54) 안은식 (문리 55) 유기정 (간호 72) 윤경순 (사대 61) 윤덕상 (치대 62) 이시영 (상대 46) 이덕수 (문리 58) 이봉수 (간호 69) 이성길 (의대 71) 이영섭 (수의 56) 임복경 (문리 56) 임현재 (의대 59) 장윤일 (공대 60) 진보린 (약대 56) 홍청일 (약대 57) 함성택 (문리 55) 오하이오 김태웅 (의대 61) 김동광 (공대 62) 이영웅 (의대 56) 이수자 (공대 62) 오레곤 OR/ID 박희진 (농대 78) 최용성 (의대 55) 한국남 (공대 57) 한영준 (사대 60) 워싱턴 DC DC/MD/VA/WV 곽명수 (문리 65) 권철수 (의대 68) 김종호 (약대 68) 김희주 (의대 62)	김현정 (미대 94) 박인영 (의대 69) 박홍우 (문대 61) 박용걸 (약대 56) 서희열 (의대 55) 송병준 (약대 68) 신상균 (의대 52) 이준영 (치대 74) 이건형 (수의 54) 이내원 (사대 58) 이선규 (문리 65) 이영덕 (사대 61) 이재승 (의대 55) 이호균 (법대 60) 우제형 (상대 54) 유영준 (의대 70) 양용관 (수의대 62) 원종민 (약대 57) 전희순 (간호 76) 조세진 (의대 65) 조화유 (문리 61) 최재귀 (미대 63) 천권희 워싱턴주 김교선 (법대 54) 김성열 (치대 61) 김형록 (간호 63) 박진수 (의대 56) 변중혜 (법대 58) 신재무 (사대 77) 안승적 (농대) 윤석진 (문리 64) 윤태근 (상대 69) 양용관 (수의대 62) 이길송 (상대 57) 이순모 (공대 56) 장현길 (공대 60) 정영자 (사범 56) 유타 UTAH/NV 김인기 (문대 58) 김용재 (의대 60) 김인기 (문리 58)	조지아 GA/AL/MS 김학래 (공대 60) 김용건 (문리 48) 김종구 (수의 73) 김현희 (간호 59) 김태형 (의대 57) 백성식 (약대 58) 송용덕 (의대 57) 손종수 (의대 50) 유성무 (상대 66) 오경호 (수의대 60) 임수암 (공대 62) 양정자 (간호 61) 정선휘 (공대 65) 텍사스 LA/DALLAS/NM 박석규 (간호 59) 박진성 (의대 67) 이석호 (농대 78) 유 황 (농대 56) 유한창 (공대 69) 진기주 (상대 60) 조진태 (문리 57) 최취기 (공대 71) 최용천 (의대 53) 필라델피아 PA/DE/S.NJ 김한중 (공대 56) 강준철 (사대 59) 고영자 (치대 63) 김경숙 (문리 59) 길정숙 (사대 53) 김국간 (치대 64) 김주진 (법대 54) 문대욱 (의대 67) 배성호 (의대 65) 송성익 (문대 59) 심완섭 (의대 69) 이송공 (의대 63) 이성숙 (가정 74) 이지춘 (미대 57) 정태광 (공대 74) 전무식 (수의 61)	전방남 (상대 73) 전희근 (의대 54) 정용남 (문리 60) 플로리다 김성준 (의대 55) 이재택 (법대 60) 이정필 (의대 58)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최준희 (의대 58) 한성수 (의대 54) 황현상 (의대 55) 커네티컷 라찬국 (의대 57) 최창송 (의대 52) 홍성휘 (공대 56) 캐롤라이나 SC/NC/KY 김기현 (문리 52) 이범세 (의대 63) 정신호 (자연 78) 테네시 김경덕 (공대 75) 임효순 (간호 71) 서갑식 (공대 70) 하와이 최경윤 (사대 51) 하인환 (공대 56) 하트랜드 IA/MO/KS/NE/AR/OK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룩키마운틴스 CO 알래스카
--	--	---	---	--	--	--	--	--

후원금 (2021. 7. 1 ~)

단위: 달러

남가주		
Pietrasys Corp	300	
김영 (수 63)	500	
김정빈 (공 66)	500	
나두섭 (의 66)	200	
오홍조 (치 56)	500	
이기준 (법 54)	500	
이범모 (치 74)	200	
한귀희 (미 68)	2,000	
한홍택 (공 60)	200	
홍훈정 (음 70)	300	
최종권 (문 59)	300	
.....		
커네티컷		
최창송 (의 52)	200	
.....		
뉴욕		
리준무 (음 65)	200	
이대영 (문 64)	3,000	
이승공 (의 63)	200	
허선행 (의 58)	200	
김영희 (간 54)	50	
.....		
뉴저지		
한승순 (간 70)	150	
.....		
북텍사스		
이석호 (농 78)	2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의 73)	388	
일리노이		
소진문 (치 58)	200	
.....		
텍사스		
진기주 (상 60)	500	
.....		
플로리다		
임필순 (의 54)	200	
.....		
필라델피아		
이송공 (의 63)	200	
정태광 (공 74)	100	
.....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아직 정리중입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는 실수가 있으면 9월호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을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2년: \$150 후원금: \$1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16대 미주동창회 주소로 납부 바랍니다

SNUAA USA 2410 James M. Wood Blvd. #C, Los Angeles, CA 90006-2005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외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ingyou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chang

장 준(인문 85)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jun@junchangcpa.com

(818)772-2811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kl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Cpa

권국원(공대) kkwuncpa@yahoo.com

(213)480-0070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의료/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richardyoondm@yahoo.com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1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6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명예회장 신용남(농)

제16대 회장 노명호(공)

▷고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Brain Network 공동위원장: 하용출(문), 이강원(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사), 박영철(농)

후원회장 서치원(공)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가)
▷문화국장: 홍선례(음)
▷홍보국장: 김자성(의)
▷사무장: 홍선례(음)

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장: 신복례(인)
▷편집 위원: 김양희(음), 양민(공), 박준창(인), 장병희(인), 김종하(인), 정승욱(자), 이남(인), 이상실(간)
▷지부 참여 편집위원: 이경애(문), 최승희(사), 이주희(음), 박승현(음), 한정희(미)

논설 위원

▷논설 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민경훈(법), 정홍택(상), 김홍묵(문), 김재훈(공), 김지영(사), 박제한(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변우진(인), 노재원(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회칙위원: 김병연(공),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발행인 노명호	편집자 신복례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www.snuu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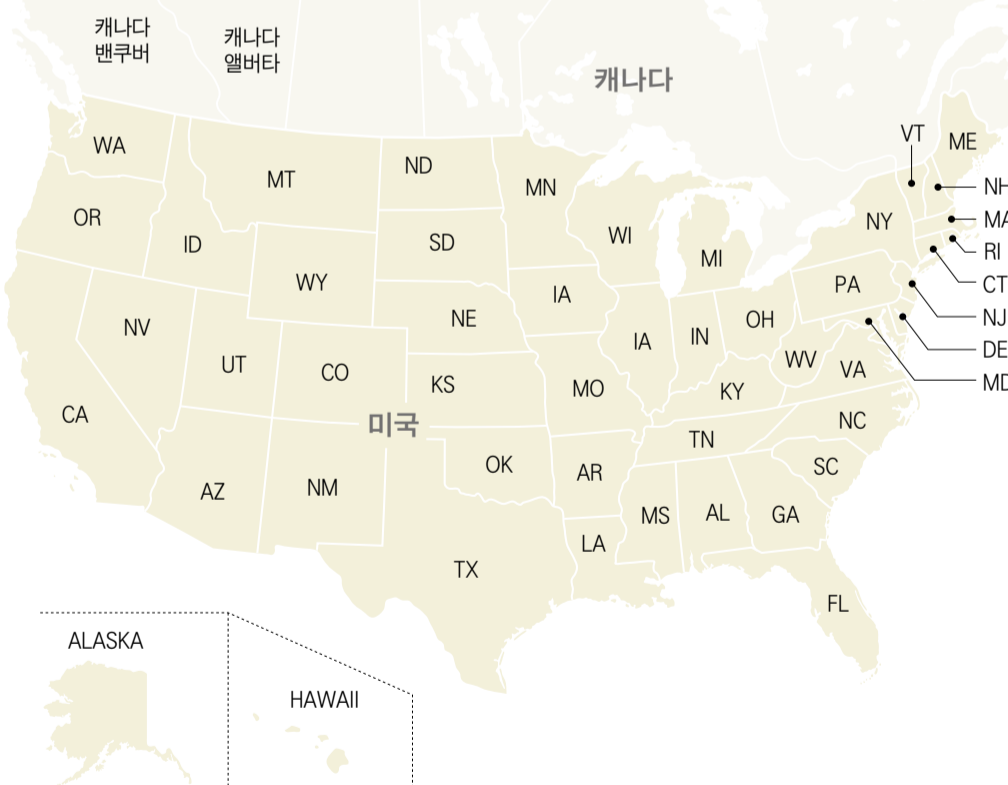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p>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778)990-6589 sphro17@gmail.com</p>	<p>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vics@shaw.ca</p>	<p>록키마운틴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p>	<p>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p>
<p>오레곤 OR/ID (Jan~Dec) 전병택(상대 65) bryancho@gmail.com</p>	<p>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p>	<p>시카고 IL/IN/WI/MI (Jan~Dec)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p>	<p>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p>
<p>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최용준(수의대 81) T: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차기 회장 박제한(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p>	<p>북가주 SANFRANCISCO (Jan~Dec) 임준원(공대 77) T: (408)220-4260 joonwlim@gmail.com</p>	<p>샌디에이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p>	<p>뉴욕 NY/NJ (July~Jun) 조상근(법대 69) T: (201)913-0565 amcoinc@msn.com</p>
<p>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명자(간호 74) drnialee@gmail.com</p>	<p>워싱턴 DC DC/MD/VA/WV (Jul~Jun)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p>	<p>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p>	<p>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p>
<p>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p>	<p>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p>	<p>텍사스 LA/DALLAS (Jan~Dec) 강성호(수의 81) T: (214)215-4447 oah9999@yahoo.com</p>	<p>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p>
<p>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p>	<p>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p>	<p>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p>	<p>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p>
<p>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p>	<p>하틀랜드 IA/MO/KS/NE/AR/OK (Sep~Aug)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p>	<p>조지아 GA/AL/MS (Jan~Dec) 김재호(공대 80) T: (404)372-2621 jhkros@gmail.com</p>	<p>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상대 68) T: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p>





제16대 미주동창회
노명호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말수회 골프모임 회장 한효동(공대 58, 전 공대회장)

- | | |
|--------------------|--------------------|
| 이기준(법대 54, 제7, 8대) | 박상길(농대 58, 제13대) |
| 방석훈(농대 55, 제23대) | 오홍조(치대 56, 제24대) |
| 이청광(상대 61, 제26대) | 김건진(문리대 62, 제29대) |
| 노명호(공대 61, 제31대) | 김동석(음대 64, 제32대) |
| 제영혜(생과대 71, 제34대) | 서치원(공대 69, 제37대) |
| 김상찬(문리대 65, 제38대) | 김병연(공대 68, 제41대) |
| 성주경(상대 68, 제42대) | 민일기(약대 69, 제45대) 등 |
|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외 12명 | |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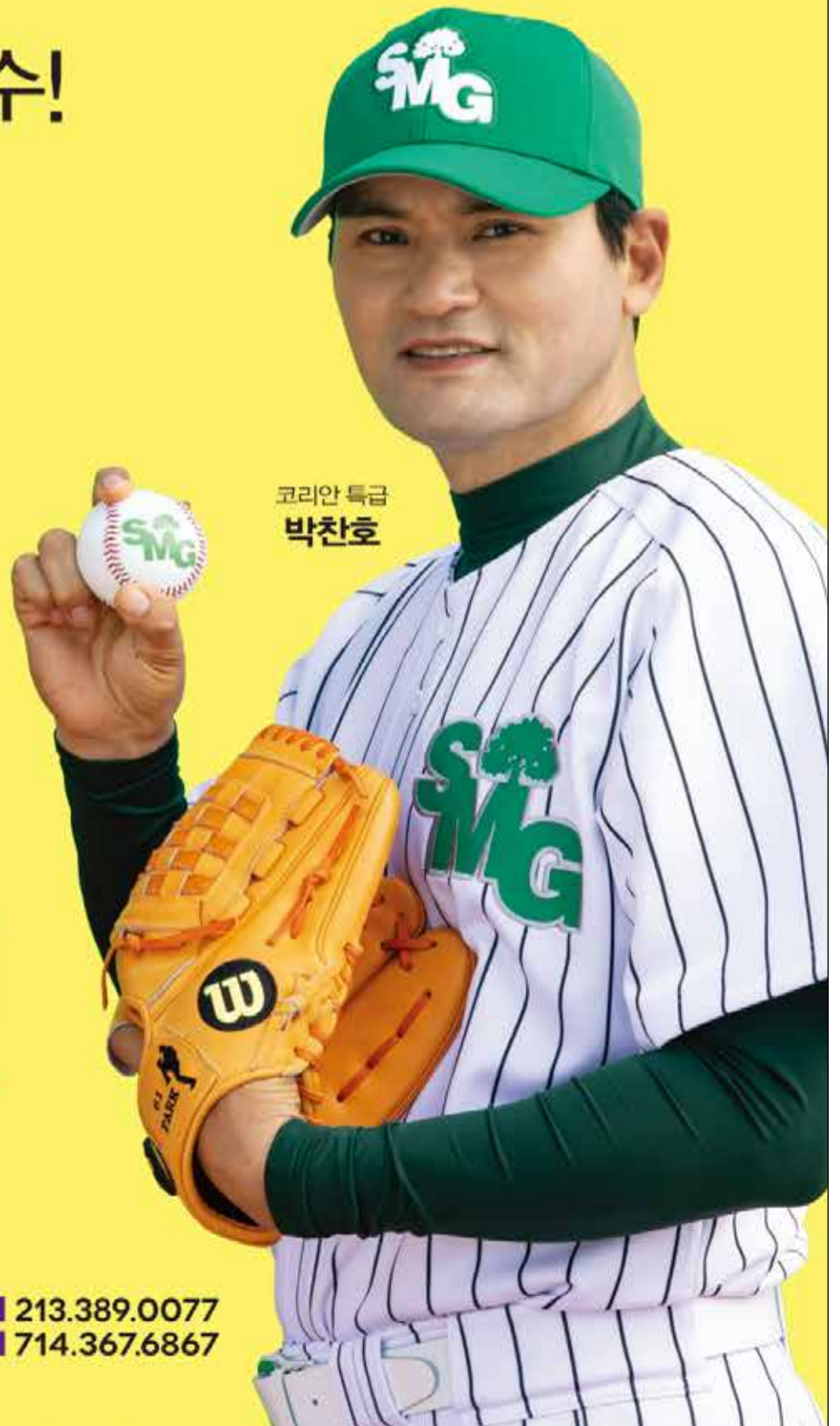
차민영(의대 76)

인생후반 건강지킴이

야구에서는 구원투수!
메디케어 HMO는
서울 메디칼 그룹!

인생 후반, 시니어 분들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의료 혜택의 선두주자
서울 메디칼 그룹이 있어
야구의 구원 투수처럼
건강도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건강 스트라이크 ~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